

# 고대사에 대한 중국문헌의 역사 인식 변화

장우순\*·문치웅\*\*

I. 머리말	III. 중국 문헌의 역사왜곡과 그 비판
II. 기존의 연구동향과 연구의 방법	IV. 맺음말

## 【국문초록】

공자가 『춘추』를 집필한 이후 현대의 동북공정에 이르기까지, 현재 중국의 영토 안에 존재하였던 많은 국가들은 관제학자들을 동원하여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역사서술을 반복해왔다. 중국의 이러한 역사서술 전통의 확립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서가 잘 알려진 『사기』이다. 『사기』는 통일된 중국의 패권을 장악한 한나라가 이전과는 다른 확장된 사회의 통치이데올로기로 중화주의와 천하 중심주의를 만들기 위해 역사라는 테마를 이용하였다. 『사기』는 중화주의와 천하 중심주의의 확립을 위해 화이공조론, 대일통주의 등을 창안해야 했으며, 한 이전의 중국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던 동이의 업적마저 도용하여야 했다.

중국의 역사 서술은 『사기』를 중심으로 하여 『사기』 이전과 이후, 세 시기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사기』를 기준으로 한 것은 특정 사건

---

\* 홍익인간재단 책임연구원

\*\* 홍익인간재단 연구원장

이나 인물의 기록에 있어서 『사기』의 기록과 『사기』 이전의 기록에 인식의 차이가 뚜렷하기 때문이다. 여러 연구들을 통해 『사기』는 중국 역사왜곡과 중화주의 정립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되고 있다. 특히 본격적인 고조선·동이 역사의 왜곡과 축소는 『사기』에서 시작되고, 그 방향을 확정하였다.

『사기』 이전의 문헌들에 나타나는 고조선과 동이는 지극히 바람직하고 올바른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다. 이 시기 고조선과 동이를 가장 상세하게 언급한 대표적인 문헌은 『산해경』으로 이러한 우호적인 논조는 동이족이 주도하였던 중국 초기문명의 영향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한편 『사기』 이후의 중국 문헌은 『사기』의 중화주의를 계승하고 심화하여 보다 빈번하고 과감하게 자의적인 역사서술을 자행하였다. 『위략』 같은 문헌은 없는 사건을 만들어내는 적극적인 조작을 감행하기도 하였다. 이 시기의 극심한 사실 왜곡은 고구려의 고토수복 활동과 국력의 신장으로 조성된 중국의 불안정한 국제정세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 시기의 사서 『위략』, 『진서』, 『구당서』 등은 『사기』가 정립한 중화주의와 고조선과 동이 역사의 청산이라는 역사서술의 방향을 계승하였을 뿐 아니라 이를 더욱 심화하여 일상적인 전통으로 만들었다.

세 시기의 문헌들을 비교한 결과 『사기』 「조선열전」에 등장하는 ‘진번조선’에 대한 기존 해석이 오류라는 것과, 『위략』에 등장하는 ‘진개의 고조선 침략기사가 창작된 허구였다는 사실 역시 파악할 수 있었다.

※ 주제어 : 『사기』, 중화주의, 정치이데올로기, 고조선, 동이, 역사왜곡

## I . 머리말

중국의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역사서술은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어 온 중국인들 특유의 학문적 전통과 연결된다. 지금까지도 중국인의 사유 속에 뿌리 깊게 남아있는 유교적인 세계관은 중국의 많은 학자들에게 자의적인 역사서술을 방조하거나 부추겨 왔다. 유

교는 본래 정치 지향적이며, 실용을 추구하는 학문이었다. 따라서 학문 자체가 유교의 전략적 목표는 될 수 없었고, 늘 통치와 실용을 위한 수단과 전술로 기능하였다. 유교를 대표하는 공자, 맹자, 순자가 모두 자신의 정치적 성공을 위해 학문을 이용하였으며, 이러한 개인적인 욕심들은 항상 이상국가의 구현을 위해서라는 공허한 명분 뒤에 숨곤 하였다. 이처럼 정치지향적인 학문은 당연히 정치적일 수밖에 없고 정치라는 목적의식은 사실을 왜곡하거나 숨기는 것을 대의 명분으로 포장하도록 일조하였다.

중국 근대의 사상가인 양계초<sup>1)</sup>는 일찍이 중국의 역사왜곡 전통을 비판하여 “아국(중국)은 어떤 학문을 막론하고 주관적 작용이 들어있다. 다른 목적을 위하여 절대로 객관적인 연구를 하려하지 않는다. 그 결과 성의도 없으며 실체도 없어 道와 文이 모두 상하고 만다. 생각하면 역사 역시 이러하다. 역사를 따르지 않는 것으로 역사를 하며, 반드시 과장하며 더 높이고 아름답게 꾸민다. 예를 들어 『명도』, 『경세』 등의 일체 사적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 제공되는 쓸모없는 물건일 뿐이다. 그 결과 역사가 반드시 나를 따르도록 강박하고 사가의 신용은 바닥에 떨어지게 된다. 이런 악습은 공자로부터 시작되어 2천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그 독이 퍼지지 않은 곳이 없다. 공자가 고친 『춘추』가 오늘날 전해지는 세계 最古의 역사책이 되었다. 역사를 창작하여 기본으로 삼았으니 한심하기가 이보다 더 심할 수는 없다.”<sup>2)</sup>라고 하였다. 중국의 애국자이자 빼어난 사상가로 이름을 날린

1) 청말·민초기의 중국의 사상가이자 교육자. 강유위에게 수학하고 입헌제 및 대동설에 공감하여 ‘무술신정’(1898) 때에 그의 참모로 활동하였다. ‘무술정변’ 실패 후에는 일본으로 망명하여 여러 잡지를 간행하며 언론활동을 하였으며, 후에 중국에 돌아가 청화대학, 남개대학 등에서 중국문화사 등을 강의 하며 교육에 매진하였다. 청말·민초기에 중국의 청년들에게 사상적으로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중국의 학자가 보는 중국의 역사가 이렇다면 그 왜곡의 실상이 어떨지는 짐작이 되고 남음이 있다.

양계초의 분석대로 중국 역사왜곡의 시작은 공자의 『춘추』로부터 시작된다. 일각에서는 공자가 『춘추』에서 보여준 글쓰기를 ‘춘추필법’이라 하여 공명정대하고 불편부당하게 역사를 기록하려 노력한 글쓰기라고 극찬한다. 요는 옳고 그름을 따져서 역사를 기록한다는 것인데 문제는 그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주체가 누구냐는 것이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개인이나 집단의 주관이 개입된 역사기술이 공명정대하고 불편부당하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눈치 챌 수 있는 거짓말이다. 『춘추』는 유교적 관점에서 중화라는 한족<sup>3)</sup> 특유의 가치를 만들기 시작한 최초의 역사서였다. 이러한 중화주의는 진의 전국통일과 한제국의 성립을 거치는 과정에서 통일된 제국을 통치하는 통치이데올로기로 기능하면서 더욱 강화되었고, 마침내 공자의 『춘추』를 계승하려는 의지가 강하였던 사마천의 『사기』를 통해서 기본적인 방향과 틀이 만들어졌다. 『사기』에서는 공자의 ‘춘추필법’을 능가하는 사마천의 주관적이고 편파적인 글쓰기가 반복된다. 『사기』 이후에 나온 사서들은 『사기』가 기획한 방향과 체계의 영향으로 더욱 심하고 빈번하게 역사적 사실에 주관적이며 자의적인 개입을 시도하였

- 
- 2) 梁啓超, 『中國歷史研究法』, 上海, 商務人書館, 1926. 「第三章 ‘史之改造’」  
 “我國人無論治何種學文含有主觀的作用-擔以他項目的, 而絕不顧爲客觀的研究結果則不誠無物道與文兩敗而俱傷惟史亦然從不肯爲歷史而治歷史而必侈懸一更高更美之目的-如明道經世等一切史跡, 則以供吾目的之芻狗而已. 其結果必至強史就我, 而史家之信用乃墜地. 這惡習起自孔子, 而二千年之史, 無不播其毒 孔子所修春秋今日世界最古之史書也若作史而宗之則乘莫甚焉”
- 3) 한족과 화하족, 하족은 모두 중국에 거주하는 여러 종족의 통합체를 지칭하는 것으로 특정 종족을 지칭하는 말이 아니다. 중국에서 고안된 중화주의의 산물이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관행상 한나라 이전에는 화하족이나 하족으로, 한나라 이후에는 한족으로 지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본고에서는 한나라 전에는 화하족, 한나라 이후는 한족으로 부를 것이다.

으며, 이런 주관적, 자의적 서술은 일종의 전통처럼 굳어져 현재의 중국에까지 그대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는 중국과 일정시기 역사·지리공간을 공유하였고, 전쟁 등 여러 사건들을 통해 좋건 싫건 끊임없이 관계를 맺어왔기 때문에 역사로 인해 파생되는 많은 현실문제에서 이해가 서로 엇갈 수밖에 없었다. 때문에 그들의 자의적인 역사서술은 곧잘 우리에게 실질적인 피해로 돌아오곤 하였다. 중국의 현대판 역사창작 작업인 동북공정 등이 궁극적으로는 그들이 주장하는 영토의 보전 및 만일의 사태를 가정한 북한에 대한 기득권 축적, 그리고 그들 특유의 중화주의에 입각한 후세 교육을 위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자명하다. 고대의 중국에서도 역시 이러한 관점과 목적을 가지고 역사를 왜곡하였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영토분쟁이나 침략전쟁 시 그들의 지분을 주장하기 위해서 거짓에 기반한 사서가 편찬되면, 시간이 흐르면서 후대에 더 윤색되고 가필되어 침략 및 중화패권주의의 새로운 근거가 되고, 결국은 다른 종족을 압박하고 배제하는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는 순환구조가 만들어졌다. 티베트, 신장, 내몽고 등 중국에 편입된 수많은 종족 및 국가들이 이러한 중화주의 역사관의 제물이 되었고, 지금도 곳곳에서 왜곡된 역사해석을 근거로 한 영토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황해의 영해문제, 북한과의 국경문제 등에서 중국과 이해를 다투어야 하는 당사자인 우리 역시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본 논문에서는 중국의 고대문헌에 한정하여 중국의 자의적인 역사서술 전통과 그 변화를 살펴보려 한다. 특히 사마천이 편찬한 『사기』의 역할을 중심으로 이러한 전통을 살피되, 『사기』 이전, 『사기』, 『사기』 이후의 세 시기로 구분하여 그 관점과 자의적인 서술의 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주제 역시 최대한 축소하여 고조선과 동이에 관련된 것으로 국한 할 것이다. 아울러 『사기』의 대표적인 왜곡의 사례인

‘진번조선’의 해석문제와 『사기』 이후 이러한 왜곡의 경향을 대표하는 사서인 『위략』에 등장하는 진개의 ‘고조선 침략’ 기록도 살펴볼 것이다.

## II. 기존의 연구동향과 연구의 방법

### 1. 국내의 연구 동향

근래에 중국의 역사왜곡을 다룬 논문들은 대부분 최근의 중국 역사왜곡 공정인 동북공정과 문명탐원공정에 관한 것들이다. 고대시기 혹은 중세시기 중국에 의해 이루어진 역사왜곡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편이다. 한국의 역사연구가 중세에는 성리학자들에 의해 독점되고, 일제시기에는 식민주의 사학자들에 의해 주도되면서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서술들로 채워진 중국의 역사문헌들은 아무런 비판의 과정도 없이 주류사학의 ‘바이블’로 자리 잡을 수 있었다. 때문에 한국의 사학계에서 중국의 고대 및 중세시기 역사문헌에 대한 비판은 정통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되었고, 비주류의 길로 내몰리는 위험을 감수하여야 했다.

이러한 불합리에 저항하려는 움직임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유교가 국시이며, 사회의 전부라고 할 수 있던 조선 후기에 유교를 비판적으로 해석하려는 경향인 실학이 등장하였고, 기존의 성리학자들이 보여주던 맹목적이고, 비합리적인 중화주의를 극복하고 우리의 역사를 주체적인 관점에서 들여다보려는 노력들이 나타났다. 이러한 흐름을 대표하는 저서들로 안정복의 『동사강목』<sup>4)</sup>, 이종휘의 『동사』<sup>5)</sup>,

4) 주자의 『자치통감강목』의 「범례」에 따라 책 제목과 서술방식을 구성하였다.

이궁익의 『연려실기술』<sup>6)</sup>, 한치윤의 『해동역사』<sup>7)</sup> 유득공의 『발해고』<sup>8)</sup> 등을 꼽을 수 있다.

하지만 실학이나 고증학의 관점으로 역사를 서술한 이들조차 조선의 유교가 설정한 소화주의 페러다임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고, 그나마 극소수에 불과했다. 급진적인 관점을 가진 이들 역시 시대가 만들어 놓은 구조적인 한계를 극복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일본의 국권침탈과 식민사학의 이입은 강한 민족적 각성을 요구하였고, 신채호 같은 선각자들은 이런 요구에 부응하여 유가의 관행을 벗어버리고 중국 문헌들을 비판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접근하기 시작하였다. 역설적으로 일제의 국권침탈은 민족적 자각을, 근대의 충격은 합리적인 근대적 사고의 동기를 부여한 셈이다. 하지만 이러한 민족적 사관은 해방 후 친일세력이 정치권력을 장악하고,

---

제목에서 보이듯이 중국을 중화로, 조선을 동쪽의 주변부로 인식하였고, 기자조선을 정통의 시작으로 인식하면서 단군조선을 소극적으로 인정하는데 그치고 있다.

- 5) 조선인을 종족적 관점에서 ‘단군족(부여족)’이라 인식하고, 「단군본기」를 배치함으로써 고조선, 부여, 고구려로 이어진 우리 역사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제시하였다. 또한 단군혈통과 기자문화에서 이어진 고구려가 세계의 중심이었으며, 이를 계승한 조선이 가장 뛰어난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 6) 역사를 시대 순으로 구성하면서 주요 사건에 대해서 원인과 결과를 밝히는 ‘기사본말체(紀事本末體)’를 대표하는 사서다. 주관적 판단 대신 대립하는 주장이나 평가를 함께 제시하여 독자 스스로 판단토록 하는 서술방식이며, 역사를 중화주의 관점에서 실사구시의 차원으로 끌어올렸다는 평을 듣는다.
- 7) 방대한 중국 및 일본의 문헌에서 우리와 관련된 기사를 채록하여 기전체로 편찬한 사서이다. 청에서 도입된 고증학적 관점과 원칙으로 과거의 가치론적 역사관을 극복하고 사실 자체를 추구하는 실학적 역사서술의 지평을 연 것으로 평가된다. 풍속사와 생활사로서도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
- 8) 최초로 발해사를 본격적인 한국사 범주로 인식하고, 신라와 발해의 남북국 시대를 제안하였던 사서이다. 발해사가 편찬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여진이나 거란에 발해가 차지했던 고조선과 고구려의 고토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을 비판하였다.

그들에 의해 정책적으로 주류사학이 지원되면서 한국의 사학계에 온전히 계승되지 못하였다. 민족주의 사학이 힘을 잃은 해방 이후의 한국 사학은 식민지 시기의 역사논리가 여전히 힘을 얻으면서 이마니시 류<sup>9)</sup>, 쓰다 소우키치<sup>10)</sup> 등 일본 제국주의 사학자들이 설정한 식민주의 사학의 프레임에 갇힐 수밖에 없었다.

일제의 사학은 제국주의적 팽창정책과 침략을 정당화하기 위한 왜곡의 역사였다. 특히 한국과 관련된 왜곡은 정체성론, 타율성론, 일선동조론 등 조선에 대한 국권침탈의 명분을 조작해내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때 왜곡과 조작이 의심되는 중국의 고대문헌들은 매우 훌륭한 전거로 활용되었다. ‘한반도의 북부는 한사군이 설치된 중국의 식민지이며, 한반도의 남부는 임나일본부가 통치하던 일본의 식민지였다.’는 주장은 일본 근대의 사학과 중국 고대의 사학이 협업으로 빚어낸 한국사 왜곡의 정점이었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일제는 평양과 인근에 수십 개의 가짜 낙랑군 봉니를 심어놓고<sup>11)</sup> 광개토태왕비의 비문을 훼손하는 등,<sup>12)</sup> 유물

- 
- 9) 今西龍은 20세기 초에 활동한 일본의 동양사학자로, 조선사편수회 회원으로 활동하였고, 경성제국대학 교수를 역임하였다. 저서로 『신라사연구』, 『백제사연구』, 『고려사연구』, 『조선사고』 등이 있다.
- 10) 津田 左右吉는 역사학자로 만철과 조선사편수회에서 활동하였다. 초기 조선 식민사학의 이론을 만든 인물이다. 최초로 한사군이 평양 등 한반도 북부에 존재하였고, 한반도 남부에는 임나일본부가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조선역사지리』 등의 저서가 있다.
- 11) 한국고고학회, 『한국고고학강의』, (주)사회평론아카데미, 2015, 176쪽. 한국고고학회의 공식입장에 해당하는 『한국고고학강의』 낙랑군 편, 176쪽에는 “일제강점기에 보고된 봉니에 위조품이 많은 것은 분명하지만, 모두를 위조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라는 문장이 있다. 일제시기의 광범위한 조작을 인정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전부가 조작은 아닐 거라 믿는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였다. 일제시대 이전에 단 한 개의 발견되지 않던 봉니가 일제시대에 갑자기 그것도 수백 개나 발견되었다는 것은 그것들이 모두 가짜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과 유적에 대한 조작도 주저하지 않았다.

국사라는 것이 자국을 중심으로 자국의 이익을 위해 역사를 인식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임을 인정한다면, 다소의 과장이나 사실에 대한 왜곡이 존재할 가능성을 부인하기 어렵다. 때문에 중국의 고대 사회처럼 황제의 권력이 절대적인 사회에서 황제의 명령으로 편찬된 사서가 황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객관적으로 쓰였을 것이라 기대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한국의 사학계는 유독 중국의 역사문헌에 대해서만은 절대적 수준의 도덕성과 객관성을 부여하고 있다. 일부학자들의 고군분투에도 불구하고 중국 고대문헌의 인식에 있어서 한국의 사학계에는 분명히 비상식적인 부분이 존재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근대시기 한국에서 가장 통렬하게 중국의 고대문헌을 비판한 연구자로는 단연 신채호를 꼽을 수 있다. 그는 『조선상고사』 등을 통해 『사기』를 포함한 중국문헌의 역사왜곡을 중국문화의 일상성으로 단정하고, 조선민족 중심의 역사서술 체계를 제시하였다.<sup>12)</sup> 신채호와 비슷한 시기에 활동한 박은식, 정인보, 안재홍 역시 이러한 민족주의적인 관점으로 우리의 역사를 구성하기 위해 중국의 문헌들을 비판적으로 해석하였다.

12) 광개토태왕릉비문의 조작에 대해서는 이미 1972년부터 많은 논쟁이 있었다. 광개토태왕릉비의 조작을 고고학과 사학적 관점에서 주장한 연구 중 대표적인 연구로 이형구의 『광개토태왕릉비신연구』(이형구·박노희 공저, 동화출판사, 1986), 「광개토태왕릉비문의 위자고」(『자유』 232, 자유사, 1992) 등이 있고, 서법과 서체의 관점에서 조작을 밝힌 연구로 김병기의 『사라진 비문을 찾아서 : 글씨체로 밝혀낸 광개토태왕비의 진실』(학고재, 2005)가 있다. 이밖에도 위조를 주장한 수많은 논문이 있다.

13) 신채호, 「조선상고사」, 『단재신채호전집』 상, 단재신채호선생기념사업회, 형설출판사, 1992, 47~58쪽. 중국문헌에 대한 비판적으로 보아야함을 강조하고 있다.

박은식은 「대동고대사론」을 통해 중국의 고대문헌들을 주체적으로 해석하고, 부여, 예, 맥, 숙신, 옥저, 고구려, 백제, 신라 뿐 아니라 만주족에 이르기 까지 만주와 한반도에 걸쳐 ‘대동민족’이 성립되어 면면히 역사를 이어왔으며, 이들 모두를 단군 혹은 단군조선의 후예라고 보았다.<sup>14)</sup> 정인보는 『조선사 연구』를 통해 신채호의 민족사학을 계승하였다. 그는 『조선사 연구』에서 단군의 나이를 단국조선의 전체 역사로 파악하였고, 특히 한사군이 한반도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명쾌한 논리로 입증하였다.<sup>15)</sup> 와세다 대학을 졸업한 안재홍은 신채호와 정인보의 민족주의 사학에 근대적인 학문기법을 접목하여 민족주의 사학을 한층 성숙한 단계로 발전시켰다. 그는 『조선상고사감』에서 사회구성체론과 사회발전단계설을 도입하여 고조선 사회가 사회발전의 단계를 거쳐 삼국시대로 발전해가는 과정을 규명하고자 하였다.<sup>16)</sup>

근래에 들어와 한국에서는 『사기』에 대한 다양한 분석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 연구는 주로 한문학, 문학, 고전학, 동양학 등의 분야가 주도하고 있는데, 사마천의 사상이나 이념, 문학적 수사, 문학사상의 위치 등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들 연구는 사마천을 위인이나 철인으로 추앙하고, 『사기』를 절대적인 텍스트로 추종하는 시각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소수의 비판적인 연구도 이루어졌는데 대표적인 논저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해중은 「『사기』의 역사서술」<sup>17)</sup>이라는 논문을 통해, 『사기』의 목

14) 박은식 「대동고대사론」(박은식 저, 조준희 옮김, 『대통령이 들려주는 우리 역사 : 대동고대사론·명림답부전·천개소문전·발해태조건국지·몽배금태조』(서울, 박문사, 2011)의 부록1)

15) 정인보 저, 문성재 역주, 『조선사연구』, 서울, 우리역사연구재단, 2012-2013.

16) 안재홍 저, 김인희 역주, 『조선상고사감』, 서울, 우리역사연구재단, 2014.

17) 전해중, 「사기의 역사서술」, 『학술원논문집 인문사회과학편』 44집, 대한민

적이 치자중심의 통치이데올로기 형성에 있으며, 대일통주의, 즉 중국의 정치적, 종족적 통합을 주창한 사마천의 주장이 허구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또 사마천이 述한다고 하며 作한 경우가 많다는 점, 그가 표방한 역사서술의 이념이나 원리와 구체적 서술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고 하나의 사실이나 현상에 다원적이고, 절충적이며, 융합적인 판단을 내리고 있다는 사실도 지적하였다.<sup>18)</sup> 사마천의 이념인 치자중심의 통치이데올로기를 만들기 위해 술이 아닌 작을 해야 했던 상황을 잘 설명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인호는 『『사기』의 허구성과 사마천의 인생관-「소진·장의열전」을 중심으로』<sup>19)</sup>라는 논문에서 『사기』의 「소진열전」과 「장의열전」에서 소진과 장의가 보인 활약이나 서술의 전개가 사마천의 창작이며, 이것이 사마천의 인생관 및 『사기』의 제자백가적 성격에 기인한다고 분석하였다. 역사서술에 사실성이 빠진다면 역사서로서는 가장 기본적인 가치를 상실한 것이라는 점에서 이인호가 두둔하는 사마천의 ‘불가피한 선택’은 문학적 견지에서 모르겠지만 역사적 관점에서는 조작과 왜곡을 미화하는 균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이인호의 글은 『사기』가 얼마나 창작에 공을 들인 허구적인 사서인지를 역설적으로 드러낸 연구사례라 할 것이다.

양중석은 『『사기·골계열전』에 대한 제평가』라는 글을 통해서 「골계열전」의 기사를 분석하고, 역사적 갈등의 생생한 묘사와 인물에 대한 심리적 통찰이라는 『사기』의 진가가 어느 정도 허구를 통하여 구현된 것이며, 『여씨춘추』의 내용과 비교하면 『사기』는 역사서로 보

---

국학술원, 2005.

18) 전해중, 앞의 글, 103~104쪽.

19) 이인호, 「『사기』의 허구성과 사마천의 인생관- 소진·장의열전을 중심으로」, 『중국어문논총』 28집, 2005.

기에 황당한 수준이라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또한 『사기』는 역사서라 하기에 작가의 주관적 해석이 지나치게 개입되어 있으며, 심지어 『사기』 안에 서로 다른 내용이 실려 있다는 사실도 지적하였다.<sup>20)</sup> 양중석의 분석은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글쓰기가 행해진 『사기』의 비역사적 성격을 비판한 것으로, 많은 중국의 학자들이 『사기』를 비판한 다양한 시각 역시 소개하고 있다.

장현근은 「중화주의의 시원과 화이공조론 비판」<sup>21)</sup>에서 중화주의의 시원이 문화적 우월의식에서 비롯되었다고 분석하고, ‘화이공조론’이나 대일통주의는 이민족동화를 위한 정치이데올로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결론에서는 화이공조를 역사적 사실로 강변하는 『사기』만큼 화이공조가 사실이 아님을 증명할 권위 있는 자료는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sup>22)</sup> 통치이데올로기라는 해석에는 공감하지만 문화적 우월주의가 중화주의의 시원이라는 분석에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오히려 화하족의 경쟁의식과 열등감이 중화주의의 뿌리일 수 있다고 본다.

한편 신승훈은 「‘傳’, 歷史와 文學의 境界」<sup>23)</sup>라는 논문을 통해 ‘傳’이 그 시작에서부터 한 인물의 삶을 도덕적·윤리적으로 평가하여 그의 삶을 집단이 공유해야 할 이념적 가치로 윤색해왔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사기』의 ‘傳’들이 지니는 역사적, 문학적 맥락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傳’이 개인이나 소수의 기억을 더 큰 집단의 기억으로 만들고

20) 양중석, 「사기 골계열전에 대한 재평가」, 『중국문학』 50집, 한국중국어문학회, 2007. 61~62쪽.

21) 장현근, 「중화주의의 시원과 화이공조론 비판」, 『동방학』 31집, 한서대부설 동양고전연구소, 2014.

22) 장현근, 앞의 글, 35쪽.

23) 신승훈, 「‘傳’, 歷史와 文學의 境界」, 『동방한문학』 67집, 동방한문학회, 2016.

싶은 작가의 바람이 투영된 서사물로 기억의 확장과 확산을 시도하는 작업이며, 작가의 상상이 적극 개입되는, 문학성이 농후한 글쓰기로 역사성을 가지지만 창작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한편 『사기』만을 비판의 대상으로 지목하여 전문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아니지만 고조선 및 고대사를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서도 기존 주류사학의 입장을 비판하며, 중국문헌 전반에 대해 비판적이고 객관적인 해석을 제기하고 있는 학자들이 있다. 이들은 동일한 문헌을 주류사학과는 다른 시각으로 해석하며, 결론 역시 완전히 다르게 도출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최근 사학계에서 상당한 세를 형성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학자들로는 윤내현, 이형구, 복기대, 공석구, 박선희 등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윤내현은 「고대문헌에 보이는 한국 고대사의 두 가지 체계」<sup>24)</sup>라는 글에서 한국 고대사의 체계를 ‘삼국유사-기본사료’ 체계와 ‘제왕운기-고려사’ 체계로 대별하고 여러 중국문헌들과의 비교를 통해 제왕운기-고려사 체계가 잘못된 체계임에도 불구하고 한국학계에서 고대사 체계의 모체가 되었음을 비판하였다.

이형구는 「요서지방의 고조선-진개의 동정 이전의 요서지방의 기자조선<sup>25)</sup>」이라는 논문에서 대능하 인근의 중국 요녕성 동대장자촌 전국묘지에 대한 고고학적인 분석을 통해 연나라가 진개의 동진 이전에 요서지방에 진출하지 못했고, 연왕 희 이전에는 요동지역으로 연문화가 진입한 바가 없다고 보았다.

복기대는 「한사군의 인식에 관한 연구1」<sup>26)</sup>에서 한사군의 설치배

24) 윤내현, 「고대문헌에 보이는 한국 고대사의 두 가지 체계」, 『고조선연구』 1집, 2008, 83~110쪽.

25) 이형구, 「요서지방의 고조선-진개의 동정 이전의 요서지방의 기자조선」, 『단군학연구』 8호, 단군학회, 2008. 31~56쪽.

26) 복기대, 「한사군의 인식에 관한 연구1」, 『몽골학』 49호, 한국몽골학회, 2017.

경과 해체과정을 분석하면서 한사군이 서한시대 하북성 중·북부에 설치되었다가 중국의 세력이 커지면서 그 세력이 커진 만큼 낙랑군도 동북방으로 그만큼 이동을 한 것으로 보았다. 또 한사군이 중국과 고구려 양국에 한정되지 않고 북방의 여러 민족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문제였음을 가축의 교역과 연관지어 해석하였다. 한사군의 위치가 중국 세력의 확장에 연동되어 변하였다는 그의 발상은 상당히 창의적이며, 또한 주목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중국의 문헌들을 시기별로 분석하여 문헌의 신뢰성과 오류가능성을 파악하여, 낙랑군 수성현이 지금의 요서에 있었을 것이라 주장한 공석구의 연구<sup>27)</sup>는 연구의 방법과 논리가 비교적 객관적이며, 특히 중국의 문헌들이 가지는 신뢰성을 파악하는 과정과 방법은 문헌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에게 좋은 참고가 될 것이라고 판단된다.

박선희는 「동천왕 평양성시기의 금관과 요서수복」<sup>28)</sup>이라는 글에서 요녕성에서 출토된 금제관식의 계통, 고대직물의 계통 등의 고고학적인 증거를 근거로 평양과 낙랑군이 한반도에 있다는 주장을 반박하고, 『구당서』, 『신당서』, 『괄지지』, 『통전』, 『수경주』 등의 문헌을 검토하여 평양성이 난하의 서쪽, 발해의 북쪽지역에 위치하였던 것으로 추정하였다.

한편 최근에는 재야사학으로 분류되는 많은 연구자들 역시 상당히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중국의 문헌들과 이를 해석하는 한·중·일 학계의 역사인식을 비판하고, 새로운 해석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의 연구는 ‘요하문명’이나 ‘홍산문화’ 등 최근의 고고학적 성과에 힘입

49~94쪽.

27) 공석구, 「진 장성 동단인 낙랑군 수성현의 위치 문제」, 『한국고대사연구』 81집, 한국고대사학회, 2016.

28) 박선희, 「동천왕 평양성시기의 금관과 요서수복」, 『백산학보』 96호, 백산학회, 2013.

어 점차 대중적인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는 중이다.

## 2. 중국 및 서구의 사례

가장 이른 시기 중국에서 『사기』와 사마천을 비판한 저서는 반고가 지은 『한서』 「사마천전」이다. 반고는 사마천의 유교에 대한 모호한 태도와 도가에 호의적인 태도를 비판적으로 보았다. 『사기』와 『한서』 모두 한나라의 정사지만 유가와 도가, 왕조에 대한 관점이 서로 같지 않았다. 이는 아마도 한나라의 통치구조가 변천하는 과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다. 또, 『사기』가 여러 왕조를 다룬 반면, 『한서』는 전한시기만을 다룬 단대사라는 점, 『사기』가 문학 작품의 성격이 강한 반면 『한서』는 역사서술과 기록에 방점을 둔 최초의 전문 사서라는 점에서도 반고는 사마천과 커다란 시각차를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대 이후의 중국은 『사기』와 『한서』의 기획과 노력에 힘입어 유교와 중화주의가 국가의 통치이데올로기로 확고하게 자리 잡게 되었고, 한나라를 이은 위, 진, 남북조, 수, 당, 송, 명대에 이르기까지 이들 사서는 역사서술의 경전처럼 추앙을 받게 되었다. 따라서 이들 시기에 『사기』를 비판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중국에서 『사기』의 내용에 대한 본격적인 비판이 이루어진 것은 청조가 들어선 이후이다. 이 시기에는 서양문물이 대거 유입되면서 이전 시기 유학과는 다른 실사구시의 학풍이 유행하였고, 이전의 역사 해석과 학문적 관점에 대한 비판적인 연구가 이어졌다. 청나라 고증학의 대가였던 전대훈은 금석학 연구 및 고증학적인 연구방법으로 『사기』 등에 의해 만들어진 ‘삼황오제’에 대한 중국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자 하였다. 특히, 화하족의 조상으로 받아들여지는 복희의 상

징이 용이 아닌 호랑이로 모든 종족이 아닌 특정한 지역의 집단을 상징한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사기』의 정치적이고, 목적의식적인 대일 통주의에 일격을 가했다.<sup>29)</sup> 동시대의 고증학자인 최술<sup>30)</sup>은 『수사고신록』<sup>31)</sup>에서 정확하고 치밀한 고증을 통해 특히 『사기』에 기록된 공자의 사적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였다. 『수사고신록』의 전체 155개 항목 중, 48개의 항목이 『사기』의 비판에 집중되어 있으며, 연대의 착오에서 허황된 조작에 이르기까지 그 비판의 내용도 다양하다. 그는 『사기』 뿐 아니라 다른 문헌들의 주장과 허구성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비판하였다. 이에 대해 박준원은 “사마천의 다양하고 유연한 『사기』의 자료 채록 방식은 최술의 엄정하고 과학적인 ‘이경위주’ 고증학에 의해 무너지고 말았다”고 평가하였다.<sup>32)</sup>

근대에 들어서는 중국의 사상가인 양계초가 『중국역사연구법』이라는 책을 통해 중국의 역사왜곡 전통의 실상과 폐해를 파헤쳤다.<sup>33)</sup> 『중국역사연구법』은 서구의 사회진화론을 수용하였으며, 신채호에게도 영향을 주어 『조선상고사』의 집필로 이어졌다.

곽말약은 은나라 청동명문의 세밀한 조사와 분석을 통해 『사기』의 내용을 반박하고, 상족의 조상이 동이이며, 동이의 조상은 소호라고 주장하였다.<sup>34)</sup> 대만의 학자인 서량지는 『중국사전사화』<sup>35)</sup>라는 저서

29) 錢大昕, 『潛研堂文集』 卷五, 「答問題十二」와 『十駕齋養新錄』 卷五, 「古無經唇音」.

30) 崔述(1740~1816년)은 청의 사학자이자 고증학자로 경서에 관한 한유의 주해를 믿지 않고, 경서 전반을 비판적으로 해석하였다. 저서로 『상고신록』, 『하고신록』, 『당우고신록』, 『수사고신록』, 『삼대고신록』 등이 있다.

31) 최술 저, 이재하 외 옮김, 『수사고신록』, 파주, 한길사, 2009.

32) 박준원, 「『수사고신록』의 『사기』 비판 : 공자의 사적을 중심으로」, 『한문학연구』 제3호, 한문학교육학회, 2009, 557~558쪽.

33) 각주 1)을 참조.

34) 郭沫若 主編, 『中國史稿』, 一冊, 人民出版社, 1962.

35) 徐亮之, 『中國史前史話』, 香港, 亞州出版社, 1956.

를 통해 화하족 역사에 앞서 동이에 의해 중국의 문명이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사기』의 주장과는 달리 중국의 역법이 이미 동이에 의해 소호 이전에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sup>36)</sup> 광말약과 서량지는 오제를 통해 화하족 중심의 중화주의와 대일통주의를 고안한 『사기』의 가장 핵심적인 전제를 와해시키는 주장을 편 셈이다.

한편 서구의 학자가 『사기』의 서술을 비판한 사례도 있다.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의 사학과 교수인 니콜라스 디코스모는 『오랑캐의 탄생 : 중국이 만들어낸 변방의 역사』<sup>37)</sup>라는 논저를 통해 중국 북방의 민족들이 스스로의 찬란한 독자문화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러한 북방의 유목민을 오랑캐로 인식하는 역사전통이 사마천의 『사기』에 의해 탄생하였음을 지적하고, 이를 강하게 비판하였다. 오히려 중국에 기마전술이나 청동기, 철기문화를 전수한 것이 바로 북방의 유목민족이었다는 사실 또한 통렬하게 지적하였다.

러시아의 고조선 연구자 유.엠. 부쩨은 그의 저서 『고조선』<sup>38)</sup>에서 한대 이전에 중국의 영역이 조선에 미치지 못하였고, 조선이 중국의 제후국이 된 적이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또 중국의 역사가나 사서들이 연나라가 중국의 동북쪽 변방에 있었기 때문에 고의로 연나라를 과장하여 기록하였다는 사실도 지적하였다. 러시아 태생인 유. 엠. 부쩨도 중국 사서의 전통인 과장과 왜곡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다.

36) 徐亮之, 『中國史前史話』, “曆法實創始於東夷而且小昊以前便已發明”

37) 니콜라스 디코스모, 이재정 역, 『오랑캐의 탄생 : 중국이 만들어낸 변방의 역사』 서울, 황금가지, 2005.

38) 유. 엠. 부쩨, 『고조선』, 서울, 보진재, 1986.

### 3. 연구의 목적 및 방법

본 논문은 중국의 역사관이 『사기』 이전, 『사기』, 그리고 『사기』 이후의 세 시기에 각각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에 주목하고, 이들 시기 별로 중국에서 생산된 문헌들을 살펴보았다. 이 세 시기의 문헌들을 각각 분석·비교하여 각 시기별 특징을 파악하고, 그 특징을 토대로 중국의 자의적인 역사서술의 전통이 어떠한 논리를 가지고 시작되고, 어떻게 진행되었으며,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였는지 알아보았다. 이러한 분석은 결과적으로 『사기』와 사마천이 중국의 자의적인 역사서술 전통의 수립에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를 규명하는 작업과 연결된다. 중국 고대문헌의 관점을 살피는 과정은 또한 현대의 역사왜곡 공정인 문명탐원공정이나 동북공정의 논리적 근원을 밝히는 과정이기도 하다.

본 논문에서는 목적하는 결과에 효과적으로 근접하기 위하여 분석 텍스트의 수량을 최소화하고, 주제 역시 고조선과 동이에 관련된 기록으로 한정하였다. 고조선과 동이라는 주제는 텍스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지만, 본고가 설정한 세 단계에서 가장 확실하게 그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주제로, 다른 모든 주제들의 지표가 될 수 있는 주제라 판단하였다.

구체적인 비교를 위해 『사기』 이전에 생산된 문헌으로는 주로 『산해경』을, 『사기』 이후의 텍스트로는 주로 『위략』을 참고하였다. 『산해경』과 『위략』은 『사기』를 분석하는데 앞뒤의 시기적 상황을 이해하고 참고하는 수준에서 분석을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들 문헌의 대표적인 왜곡사례인 『사기』 「조선열전」의 ‘진번조선’ 및 ‘호’의 해석문제와 『위략』에 기록된 진개의 ‘고조선 침략’ 기록에 대해 진위여부를 검토해보았다.

### Ⅲ. 역사왜곡의 실체와 그 비판

중국의 역사서술 관점은 『사기』 이전, 『사기』, 『사기』 이후의 세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이들의 관점의 차이는 특히 우리의 역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동이 및 고조선의 상고사와 관련한 기록에서 두드러진다. 때문에 중국의 역사왜곡의 흐름을 이해하는데 좋은 지표가 될 수 있다. 『사기』 이전의 문헌에서는 동이 및 조선에 대해 우호적이며, 긍정적인 관점이 주로 읽힌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동이와 고조선에 대한 적대의식과 경계의식이 점차 강해진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사기』에서는 이전의 문헌들과 달리 동이 및 고조선에 대해 의도적인 폄하와 무시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동이의 기록을 한족의 것으로 탈바꿈하여 도용하는 기록들이 대거 등장한다. 마지막으로 『사기』 이후의 사서들은 『사기』의 관점이 고착되고 심화되면서 한족과 동이를 뚜렷이 구별하고 중화주의적인 관점을 고도로 강조하게 되는데, 이를 위해 이들 사서의 집필자들은 더 빈번하고 심하게 자의적으로 역사를 서술해야 했다.

#### 1. 『사기』 이전의 고조선 및 동이기록

『사기』 이전의 문헌들은 저술 시기나 저자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또한 이 시기의 문헌들은 진본이 아닌 후대에 만들어진 위조본일 가능성도 매우 높다. 또 진본이 남아있는 기록들도 후대의 가필을 의심받고 있는 경우가 부지기수다.<sup>39)</sup>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39) 『춘추』가 후대에 가필되었다는 사실은 중국학계에서 일찍이 제기되었고, 『사기』, 『논어』, 『관자』 등도 중국에서 가필의 의심을 받고 있는 대표적인 문헌들이다. 중국의 학계에서 고문헌의 가필문제는 근대 이래로 꾸준히 제기되

하고 기록의 일부는 당시의 시대상을 어떤 형태로든 반영하고 있어서, 비판적인 텍스트 읽기가 선행된다면 해독하고자 하는 일정한 역사적 사실에 접근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준다.

이 시기 문헌 중 조선과 동이에 대한 기록이 가장 풍부한 책의 하나가 『산해경』이다. 작자와 저작시기에 많은 이설이 있지만 대체로 전국시대 전 시기에 걸쳐, 제나라와 동이족의 巫史들이 자신들의 산천, 문화, 제사, 복사에 관한 기록을 남기기 위해 썼다고 보고 있으며,<sup>40)</sup> 은·상문화를 포함한 동이문화와 깊이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만큼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한다.<sup>41)</sup> 『산해경』의 기록, 특히 동이와 관련된 기록들은 은의 청동명문 및 최근의 고고학적 발굴에 의해 상당부분 사실로 밝혀지고 있다.

다음은 『산해경』에 나오는 동이 및 고조선과 관련된 기록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

어은 오래된 주제이다.

- 40) 王寧, 「『五藏山經』記述的地域及作者新探」, 『管子學刊』 2000년 3기, 2000.
- 41) 국내에서 은이 동이인지 여부를 놓고 논쟁이 벌어지는 경우가 간혹 있다. 하지만 중국의 학자들도 은이 동이라는 사실에 대체로 동의한다. 더군다나 고조선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거나 그 후예일 가능성도 제시되었다. 예를 들어 孫作雲의 『蚩尤考』나 傅斯年的 「夷夏東西說」(『慶祝蔡元培先生 65歲 論文集 下冊』)에는 “猶殷民族源於遼東及朝鮮西北部”라는 대목이 나온다. 은이 고조선이나 요하문명의 중심지인 요동과 조선의 서북부에 있던 종족임을 말하는 것으로, 이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당연히 은은 고조선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동이일 수밖에 없고, 은 문화가 고조선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라는 해석도 가능해진다. 이들의 주장은 은 청동명문의 해석을 통해서도 입증되고 있다. 특히 은의 청동명문을 연구한 곽말약이 중국 정부의 정책에 따라 편찬하여 당시의 정설을 담은 『中國史稿』에는 “상족의 조상은 동이인이고, 동이인의 조상은 소호씨이다. 소호족은 새를 토렘으로 한다(商族的祖先爲東夷人, 而東夷人的祖先爲少昊氏. 少昊族以鳥爲圖騰).”고 하여 은이 동이의 후손임을 분명하게 밝혔다.

- 가) 東海之內北海之隅有國名曰朝鮮天毒其人水居儂人愛之  
 동해의 안쪽 발해의 북쪽 모퉁이에 나라가 있는데 이름이 조선·천독이라 불렀으며, 그 사람들은 물가에 살며 사람을 경외하고 사랑한다. 「해내북경」  
 朝鮮在列陽東海北山南列陽屬燕  
 조선은 열양의 동쪽 발해의 북쪽 산의 남쪽에 있다. 열양은 연에 속한다. 「해내북경」  
 君子國在其北，衣冠帶劍，食獸，使二大虎在旁，其人好讓不爭  
 군자의 나라는 그 북쪽에 있으며, 의관을 갖추고 짐을 한다. 짐승을 먹으며, 대호 두 마리를 곁에 거느린다. 그 사람이 양보를 좋아하여 싸우지 않는다. 「해외동경」
- 나) 有山名曰大言 … 有山名曰合虛 … 名曰明星 … 有山名曰鞠陵於天 … 有山名曰孽搖□瓶 … 有山名曰猗天蘇山 … 有山名曰壑明俊疾日月所出.  
 대언, 합허, 명성, 국릉어천, 열요□저, 왈의천소, 학명준질 등 일곱 개의 일월이 뜨는 산이 있다.(해가 절기에 따라 일곱 산에서 뜬다.) 「대황동경」  
 有女子方浴月帝俊妻常羲生月十有二此始浴之  
 여자가 있는데 달을 씻긴다. 제준의 아내 상희가 12개의 달을 낳았다. 그래서 달을 씻기기 시작하였다. 「대황서경」
- 다) 有中容之國帝俊生中容中容人食獸木實使四鳥豹虎熊羆  
 중용지국이 있다. 제준이 중용을 낳았다. … 중용의 사람들은 짐승과 나무의 과실을 먹고, 사조와 표범, 호랑이, 곰, 큰곰을 부린다. 「대황동경」  
 有司幽之國帝俊生晏龍， … 食黍食獸是使四鳥  
 사유지국이 있다. 제준이 안룡을 낳았다. … 조와 짐승을 먹고, 사조를 부린다. 「대황동경」  
 有白民之國帝俊生帝鴻， … 食黍使四鳥豹虎熊羆  
 백민지국이 있다. 제준이 제홍을 낳았다. … 조를 먹고, 사조와 표범, 호랑이, 곰, 큰곰을 부린다. 「대황동경」  
 有黑齒之國帝俊生黑齒， … 食黍使四鳥  
 흑치지국이 있다. 제준이 흑치를 낳았다. 조를 먹고 사조를 부린다. 「대황동경」
- 라) 有五采之鳥相鄉棄沙惟帝俊下友帝下兩壇采鳥是司  
 오색의 새(오채조)가 있다. 서로 춤을 춘다. 제준이 천상에서 내려와 그들과 교우한다. 제준은 하계의 두 개의 제단에 모셔졌는데 오채조가 관장한다. 「대황동경」

가)의 「해내북경」 첫 문장은 나라의 이름이 ‘조선·천독’<sup>42)</sup>으로 사람들이 물가에 거주하며, 사람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는 곳임을, 뒤의 문장은 조선이 열양 동쪽, 산 아래, 바다의 북쪽에 있음을 말하고 있다. 또 「해외동경」에서는 군자국, 즉 고조선<sup>43)</sup>이 발해의 북쪽에 있어 사람들이 검을 차고, 짐승을 잡아먹는데, 호랑이 두 마리를 거느리고 있으며, 양보를 좋아하여 싸우지 않는다고 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산은 음산산맥과 대흥안령산맥이고, 바다는 발해를 가리킨다.

나)의 문장들은 중국 역법의 기초가 된 동이의 산두역법<sup>44)</sup>과 1년이 12개월이라는 역법개념을 보여주는 것으로 당시 동이의 앞선 과학지식을 설명한다. 이러한 과학지식은 은의 청동명문이나 이후의 중국문헌들을 통해서도 충분히 입증되었다.<sup>45)</sup>

- 
- 42) 천독은 인도를 뜻하는 말로 고조선 구성의 일부가 인도나 동남아계열이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유전인류학적 분석과 새 토토편, 고인돌 등의 풍속을 근거로 고조선과 인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는 이미 많이 이루어졌다. 관련 연구는 다음과 같다. 송화섭, 「한반도 고인돌의 남방문화론」, 『한민족연구 제 1호』, 2006 ; 이지희, 「아시아 지역 난생신화의 유형과 의미」, 성균관대학교 비교문화학 석사학위논문, 2005 ; 김정남, 「박혁거세는 인도인이 키웠다. 신화에 나타나는 우리말과 타밀어의 유사성, 현두교문화의 흔적」, 『뉴스메이커 제16권, 제14호, 통권 709호』, 2007 ; 이해영, 「한국어와 드라비다어의 어휘 비교조사」, 『국어과 교육』, 1989 ; 김주미, 「한국어의 북방기원설 답론」, 『한민족문화연구』 27집, 2008 ; 방민규, 「체질인류학으로 본 한국인의 기원 : 차이인류학적 연구를 중심으로」, 『한민족연구』 9호, 2010 ; Spencer Wells(체인진 옮김), 『인류의 조상을 찾아서 : 제노그래픽 프로젝트』, 말글빛냄, 2007 ; 진성준, 「동아시아인 집단 Y-염색체 DNA haplogroups 분포에 관한 민족유전체 정보와 한국인 집단의 형성과정 및 기원」, 단국대학교 생물학과 박사학위 논문, 2003.
- 43) 『周禮全經釋原』에서는 “東夷箕子之國 孔子所欲居”라 하여 공자가 가고 싶은 군자의 나라가 기자가 있는 동이의 국가, 즉 고조선임을 밝히고 있다.
- 44) 후한 시기에 쓰인 『論衡』 「設日篇」의 기록과 정확하게 부합하여 후한 및 그 후 중국이 사용한 역법이 은 및 동이가 은나라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역법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의 기록들은 중국 동이족의 시조이며 천제인 제준 및 그 동족에 관한 내용들이다. 제준의 친지들이 세운 나라에서 조와 짐승을 먹고, 4족, 혹은 표, 호, 응, 비를 관리로 파견했다는 내용이다. 동이가 일찍이 농사를 짓고, 새와 표범, 호랑이, 곰, 큰곰 등의 맹수를 토tem으로 하였으며, 특히 새가 중요한 토tem이었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

라)의 문장은 제준이 제단에 모셔졌으며, 그 제단을 관장하는 관리가 오채조<sup>46)</sup>라는 새 이름의 관리라는 것으로, 태양숭배와 연결되는 새 토tem 및 천제로 불리는 제준과 관련한 동이 문화의 특징을 보여준다. 새 토tem은 남방의 해양계 종족의 태양숭배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천신숭배는 전형적인 북방 유목민 계열의 건국신화로 태양숭배와도 밀접하게 연결된다. 이처럼 『산해경』에는 고조선의 위치, 사람들의 품성, 동이의 역법이나 토tem, 신앙 뿐 아니라 복사, 사방개념, 사신숭배 등 동이족 문화와 관련된 수많은 기록들이 수록되어 있는데, 기록은 남들의 것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고 자신들의 것을 소개하는 것처럼 세밀하고 친근하게 묘사되어 있다. 기록의 주체가 동이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이유다.

『춘추』를 통해 중국의 역사왜곡 전통을 창조한 장본인으로 지목되는 공자의 가르침을 전하는 『논어』의 「子罕篇」에는 “子欲居九夷惑曰陋如之何子曰君子居之何陋之有”라는 문장이 있다. 공자가 ‘구이’에 살고 싶어 하며, 혹자가 누추할 것이라 말하지만 공자는 “군자가 거한 곳이 누추할 리가 없다.”고 말하였다는 것이다. 한편 「公冶長篇」에서는 “道不行乘桴浮於海”라 하여 도를 찾아 뗏목을 타고라도 바다(황하)로 나아가 구이로 가고 싶어 하던 공자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

45) 張永聖, 「山海經中國東夷故事與傳說」, 산동사범대학교 고대사 석사학위논문, 2014, 22~27쪽에서 인용.

46) 봉황 혹은 꼬리가 긴 토종닭을 말한다.

다. 공자의 활동시기(서기전 6C 후반~5C 초) 중국의 구이는 소국의 형태로 각지에 산재해 있었으며, 모두 배를 타지 않아도 찾아갈 수 있는 곳에 위치하였다. 따라서 공자가 말한 구이는 중국에 거주하던 구이를 뜻하지 않는다.

중국에서 배를 타고 가야 도달할 수 있고, 중국 밖에 위치한 동이 중 가장 번성하였으며, 유일하게 동이의 본거지로 인정될 수 있는 고조선을 가리키는 것 외에 다른 해석을 찾기는 쉽지 않다. 특히 지리적으로도 당시 황하가 천진지역으로 흐르고 있었고, 그 폭이 수십 킬로미터에 달하였으며, 해안선 역시 내륙으로 수십 킬로미터 이상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sup>47)</sup> 산둥 곡부에 있던 노나라에서 고조선이 위치한 발해만의 북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황하를 건너가기 위해 반드시 배를 타야했던 상황과 일치하고 있다. 또, 고서에서 海가 때로는 황하로 읽혔는데 그 이유가 엄청나게 하구가 넓어서 바다와 같았기 때문이다.

공자의 고향이 중국내 동이의 근거지였던 곡부<sup>48)</sup>라는 점에서도 ‘구이’는 중국내 동이의 근거지일 수 없다. 바다 건너, 즉 황하의 하구 혹은 하구와 만나는 바다 건너편에 있는, 원래 동이가 발원한 고조선을 지칭하는 것이 분명하다.

명나라의 학자인 가성천이 지은 『주례전경석원』<sup>49)</sup>에서도 “東夷箕子之國 孔子所欲居”라고 하여, ‘동이기자지국’, 즉 기자가 망명하였던 조선이 바로 공자가 살고 싶어 하던 곳이라는 점을 정확하게 지적

47) 「黃河下游河道變遷」, 中國水利部黃河水利委員會, 2011.

48) 『좌전』 「정공 4년」 기사의 杜注는 “小昊虛曲阜也”라고 하여 곡부가 동이족의 근거지였음을 말하고 있다. 이외에도 곡부를 중심으로 한 산둥지역이 동이의 근거지였다는 기록은 수도룩하다.

49) 柯尙遷, 『周禮全經釋原』, 『四庫全書』 總第0096冊－經部第0090冊에 수록되어 있다.

하고 있다. 또 청나라 때 훌륭한 정치가이자 뛰어난 학자였던 장정석이 지은 『상서지리금석』<sup>50)</sup> 「우서」 ‘요전’도 “嶠夷今朝鮮也. 孔安國傳東表之地稱嶠夷”라고 하여 우이가 고조선이며, 『공안국전』의 ‘동표지지’가 바로 우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 고대의 우와 구는 발음이 같고,<sup>51)</sup> 또한 우이가 조선과 마찬가지로 ‘해가 뜨는 곳’을 의미하므로,<sup>52)</sup> 우이는 구이이며, 조선을 말한다. 따라서 공자가 동경하던 구이는 바로 고조선을 지칭하는 것이다.

『논어』 뿐 아니라 당시의 기록들 대다수가 동이를 인의를 알고, 덕을 아는 군자로 묘사하고 있다. 『시경』의 「주수」에서는 “彼徂矣岐有夷之行”, “既有淫威降福孔夷”라 하였으며, 「정풍」에서는 “既見君子胡不夷”라 하였다. 여기 쓰인 夷字는 크고 넓다, 마땅하다. 즐겁다는 뜻으로 모두 긍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동이를 뜻하는 夷字의 쓰임이 이렇다면 당시 문사들에게 동이가 얼마나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의미였는지 충분히 짐작해볼 수 있다. 『예기』 「곡례」에서도 잘못됨이 있는 곳에서도 다투지 않는 동이의 너그러운 품성을 말하고 있다 (“在醜夷不爭”).

『사기』 이후에 쓰였지만 고전을 기초로 만든 『설문해자』에서도 “夷는 大와 弓으로부터 나왔으며 동쪽의 사람이다(從弓. 東方之人也).”, “인을 풍속으로 한다. 인자는 장수하며, 군자가 있는 불사지국이다(夷俗仁. 仁者壽. 有君子不死之國).”라고 하여 동이 혹은 고조선이 인자한 군자의 나라임을 밝히고 있다. 자의를 밝히는 책에 쓰인 글이므로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반면 고조선이나 동이에 대해 적대적인 기록도 전해진다. 『관자』 「匡

50) 蔣廷錫, 『尙書地理今釋』. 청나라 강희제 때 편찬되었다.

51) 孫作雲, 앞의 책, 「篇下 論蚩尤之苗裔」.

52) 『康熙字典』 「寅集中」 山字部, ‘嶠’, 『書經』 「堯傳」.

君小匡」에서는 “고죽국<sup>53)</sup>을 참하여 구이<sup>54)</sup>가 말을 듣기 시작하였다 (北伐山戎制泠支斬孤竹而九夷始聽).”거나 “태항산과 비이<sup>55)</sup>의 맥을 넘어 진하<sup>56)</sup>(=진한=진조선)를 억제하고, 서의 유사, 서우를 정복하여 진웅이 따르기 시작하였다(踰太行與卑耳之貉拘秦夏西服流沙西虞而秦戎始從).”라고 하여 동이를 물리치고 복종시켜야 할 적으로 인식하는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제는 중국의 학자들도 인정하는 동이의 나라이며, 중국내 동이를 대표하는 나라였다. 따라서 제와 고조선의 전쟁은 화하족과 동이족간의 종족전쟁이 아닌 전국시대에 중원의 패권을 장악한 제의 환공이 동이족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던 고조선에 도전하였던 동이 내부의 전쟁으로 볼 소지도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고조선을 경계하는 화하족의 시각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살펴본 것처럼 『사기』 이전의 기록들은 대부분 인, 예, 군자, 군자지국, 불사지국, 장수, 근본 등 인간사회의 핵심적인 것, 문화적인 것, 바람직한 가치들로 동이나 고조선을 묘사하였다. 대다수 문헌들이 조선과 동이에 대해 우호와 동경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지만, 우호의 시선과 함께 경쟁과 경계의 시각도 엄연히 병존하고 있었다는 사실 역시 분명하다. 이러한 찬사와 경계심의 공존은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다. 이렇게 찬사와 경계가 공존한 배경은 아마도 다음과 같은 것들이 아니었을까.

53) 상고대에 북경 인근에 있던 나라로 고조선의 번국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54) 여기서도 ‘구이’는 고조선을 뜻한다.

55) 신채호, 앞의 책, 상권, 54~55쪽. 신채호는 마한의 費離, 백제의 夫里과 같은 뜻으로 불을 의미하며, 도회를 말하는 것이라 하였다. 이는 상고시기 산서성에 조선의 도회가 있었다는 의미이다.

56) 신채호, 「조선상고문화사」, 앞의 책 상권, 375~376쪽. 신채호는 진한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았다.

첫째, 한이 중국의 패자가 되기 전에 화하족과 동이족의 모순은 생각보다 크게 드러나지 않았다. 아직은 종족의 분리도 극단적으로 진행되지 않았으며, 동이족에 대한 논리적인 공격이 적극적으로 행해지지 않았다. 그러한 공격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한이었고, 한 이전에 중국에서 논리적으로 동이를 공격할 만한 문화배경을 가진 집단은 존재하지 않았다. 동이족과 고조선에 대한 공격은 진의 통일 이후 내부의 적이 없어진 이후에나 가능한 일이었다.

둘째, 실제로 동이족은 훌륭한 성품을 갖춘 군자들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동이들의 원천 문명으로 추정되는 요하문명<sup>57)</sup>이 세계에서 가장 앞선 문명이라는 사실은 동이가 상고시대에 화하족에 비해 적어도 1000년 이상 앞선 문명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또 고조선과 중국 동이의 거점은 중국 동북부와 동부의 해안가로 바다와 넓은 평야가 있어 물산이 풍부하고, 농업과 산업이 발달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문명적으로 한참 뒤쳐진 채 중국 서부의 척박한 산악지역에 고립되어 살아가던 화하족 집단의 궁벽한 문화적 소양에 비해 예절과 덕이 있는 품성이 형성될 수 있는 문화적, 물질적 토대가 잘 구비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런 문화·산업 강국의 면모는 화하족의 입장에서 초기에는 배울

---

57) 요하문명, 홍산문명 등을 중국과 연결시키려는 시도가 중국의 동북공정, 문명탐원공정 참여 연구자들 및 한국의 일부 학자들에 의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계속 밝혀지고 있는 새로운 고고학적인 성과들은 요하문명의 주인이 한국인들의 선조일지 모른다는 가능성을 강하게 지목하고 있다. 시간이 지나고 연구가 진행될수록 중국에 불리하고 한국에 유리한 상황이 대세가 될 확률이 높다. 문명탐원공정이나 동북공정은 이러한 상황을 예견한 중국 당국이 선제적으로 핵심적인 유물과 유적을 빼돌리고 상황을 조작하기 위해 진행한 프로젝트일 수도 있다. 요하문명에서 발견되는 적석총, 비파형동검, 옥기 등은 중국에서는 전혀 유래를 찾을 수 없으며, 한국의 상고시대와 고대에는 흔하게 발견되는 유물이다.

점이었지만 동등한 문화수준에 도달한 뒤에는 질투와 경계의 요소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셋째, 요하문명의 선진성에서 볼 수 있듯이 중국 뿐 아니라 세계 전체의 문명을 선도한 동이의 시대적 역할에 주목한다면 동이는 한 때 뛰어난 문명을 바탕으로 미개한 중국에 문명을 전파하면서 신으로 추앙되고, 중국사회의 질서와 문화를 창조하는 위치에 있었으므로,<sup>58)</sup> 이때 만들어진 기록과 제도 등 모든 문물이 동이족을 중심으로 되어있었을 것이다. 때문에 이후의 기록과 제도도 그것들을 차용하고 모방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동이족 중심의 사고방식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사기』나 그 후의 문헌에 등장하는 오제나 그 토tem, 사방·사신의 개념, 오행, 역법, 기타 문물제도 등에 대한 기록들 모두가 동이의 것을 모방하거나 도용한 것이었음이 이를 입증한다.

한족이 패자의 위치를 획득하게 되면서 중국문명의 근원이 한족의 선조가 아닌 구성원 대다수로부터 칭송을 받는 동이의 것이라는 사실을 시기하기 시작하였고, 통치의 관점에서도 동이족에 대한 긍정적인 평판들이 존재하는 한 상대적으로 천박한 문화로 여겨지던 한족들의 정치적인 권위가 쉽게 세워지지 않는다는 현실적 문제가 제기되었을 것이다. 또한 이후 자신들의 권력에 도전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동이가 가지고 있던 역사적 연고권을 감안하더라도 동이를 경계해야 할 필요는 충분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 이 시기의 문헌들은 일부 왜곡이나 감정적인 기록이 발견되지만 그래도 여전히 후대의 기록에 비해서는 객관적으로 동이 및 고조선을 기록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 이 시기에 쓰인 기록들은 『산해경』의 경우처럼 그 생산자가 동이인 경우도 흔하였을

58) 『사기』 「오제본기」에 등장하는 인물 대부분이 동이족이었으며, 이들은 모두 화하족들에 의해 신으로 추앙되던 인물들이다.

것으로 추정된다. 때문에 이 시기의 문헌들은 후대의 왜곡을 바로잡을 수 있는 원전의 성격을 갖는 매우 중요한 문헌들이라고 할 수 있다. 고조선 및 동이의 역사가 왜곡되기 시작한 것은 중국에서 화하족의 영향력이 급속히 확대되던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미 동이를 통해 문명을 전수받아 기술과 문명으로 뒤질게 없어진 화하족은 그들의 침략적이며 호전적인 성격으로 중국 곳곳에서 동이를 몰아내고 주도권을 장악하기 시작하였다. 동이의 국가인 은이 몰락하고 화하족의 국가인 주가 성립되면서 이러한 흐름은 더욱 빨라졌을 것이다.

## 2. 『사기』의 고조선 및 동이기록

중국 한족의 역사, 중화주의의 역사는 사마천의 『사기』가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사기』의 기록은 이전의 역사서술과 확연히 다르며, 이후 중국의 학자나 중국인들에게 절대적으로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사기』의 내용을 선입견 없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검토한다면 아주 쉽게 조작과 창작의 흔적들을 발견할 수 있다. 동이와 고조선에 대한 『사기』의 기록은 당시의 시기와 정세를 볼 때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사마천이 고조선과 전쟁을 하였던 한무제의 신하로, 고조선을 적대시하여 전쟁까지 일으켰던 한무제의 시각이 어떤 식으로라도 기록에 반영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당태종이 『진서』를 편찬토록 명하여 고구려와 그 조상 고조선의 역사를 왜곡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 1) 상고사의 왜곡

『사기』의 조작은 상고사를 다룬 책의 가장 앞부분에 해당하는 「오

제본기」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오류가 있는 내용은 헤아릴 수 없이 많지만 각각의 사례를 분석하여 큰 틀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범주로 수렴된다.

- 가) 오제와 하우, 은나라 탕왕의 선조인 설까지 모두 혈연관계인 것으로 묘사하여 상고시대 중국의 지배세력이 하나의 혈통, 하나의 집안이었음을 반복적으로 강조한다.
- 나) 황제나 요, 순 등이 다스린 영역이 후에 중국을 통일한 진이나 한처럼 광대한 것으로 과장한다.
- 다) 중국문명을 창조하고 상고시기 중국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을 동이족에 대한 설명을 의도적으로 생략하거나 무시한다. 또 기타 종족에 대해서도 동물 등으로 비유하고 멸시한다.
- 라) 설명이 어렵거나 난처한 부분은 신화나 전설 같은 이야기로 얼버무린다.

우선 가)는 한족이라는 정체성을 만들기 위한 『사기』의 목적과 의도가 반영된 서술이다. 하지만 이러한 집요한 반복은 사실이 아님에도 억지로 강조할 때 흔히 사용되는 서술의 방법이다. 객관적인 사실이라면 굳이 반복적으로 강조할 필요가 없다. 본문의 기록은 거짓 족보를 반복적으로 늘어놓고 마지막 부분에서 “自黃帝至舜禹皆同姓而異其國號以章明德.”이라 하여 황제에서 하의 우, 은의 탕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같은 핏줄이었음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책의 제일 마지막에 특히 강조된 주장이 마침 거짓말이었다는 것은 바로 이 주장이 오제본기 집필의 목적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바로 이 한 줄의 멘트가 「오제본기」 집필의 목적이었으며, 사마천이 주장하고 싶었던 주된 내용이었던 것이다. 아마도 사마천은 그것이 중화주의, 한족의 정체성을 창조하는 첫 걸음이라고 생각하였을 것이다. 『사기』의 ‘대일통주의’는 바로 이렇게 모든 종족을 자신들을 중심으로 통합하려는 한족중심의 전체주의적 발상이었다.

하지만 중국에서도 이러한 주장에 동의하는 학자는 거의 없다.<sup>59)</sup> 순은 『사기』 이전에 쓰인 『맹자』 「이루」 하편<sup>60)</sup>을 비롯한 많은 문헌에 동이로 기록되어 있으며, 『사기』나 『목자』에서 설명한 순의 근거지인 역산<sup>61)</sup>을 보아도 동이라는 사실을 의심하기 어렵다. 또 우는 치우와 같은 동이족이라는 중국내의 여러 연구<sup>62)</sup>가 있고, 송나라의 사서 『태평어람』 780권에도 기가 하의 후예로 동이라는 사실이 적시되어 있다. “기가 하의 후예이다. 즉 동이이다(杞夏餘也而即東夷.)”라는 말은 “기가 하의 후예이기 때문에 동이이다.”라는 의미로 하가 곧 동이의 나라라는 사실을 상식에 해당하는 지식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게다가 『태평어람』이 지어질 당시는 당을 거치면서 중화주의가 최고조에 달하였던 송대의 일이다. 더군다나 송 태종의 명령으로 18년에 걸쳐 편찬한 역사서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인식이 『태평어람』을 지은 양생 개인의 인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사마천이 역시 오제와 같은 혈육이라고 주장한 은의 선조 설도 은의 청동명문 연구의 대가인 곽말약 등의 연구자들에 의해 동이족임이 밝혀진 지 오래이다.<sup>63)</sup> 또한 오제나 등장인물들의 토템 및 탄생설

59) 김연주, 「선진 시기 산동성 지역 ‘동이’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동아시아학연구협동과정 박사학위논문, 2011 ; 張永聖, 「山海經中國東夷故事與傳說」, 山東師範大學校 古代史 碩士學位論文, 2014. 두 논문에는 상고시대의 동이의 활약에 대한 자세히 언급되어 있다. 특히 중국의 연구자인 장영성은 동이의 역법, 사방신 개념 등 중국 초기문명의 업적이 동이 것임을 논증하였고, 오제의 토템과 동이의 토템이 일치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60) 『맹자』 「이루」 하, “孟子曰舜生於諸馮, 遷於負夏, 卒於鳴條東夷之人(맹자가 말하기를 순은 제풍에서 태어나고 부하로 옮겼으며, 명조에서 사망한 동이 사람이다.)”

61) 산동성 제남에 있는 산으로 이 지역은 은과 주대 대까지도 동이족의 주된 활동지역이었다.

62) 孫作雲, 앞의 책.

63) 郭沫若 主編, 『中國史稿』, “商族的祖先爲東夷人, 而東夷人的祖先爲少昊氏. 少昊族以鳥爲圖騰.”, 곽말약은 해방이후 중국의 정무원 부총리, 국가연구원

화 역시 모두 동이족의 것으로,<sup>64)</sup> 이들이 동이족이며, 그 내부의 서로 다른 부족일 가능성을 보여준다.<sup>65)</sup> 이렇게 볼 때 「오제본기」는 동이족의 실제 이야기를 화하족으로 주인공들의 종족만 바꾸어 편집한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나)의 주장은 진·한 때에야 도달한 영토의 범위로, 한의 영역을 기준으로 과거의 영역을 거짓으로 꺾어 맞춘 것에 불과하다. 신석기나 청동기 초기에 해당하는 오제의 시기에 한과 같이 거대한 크기의 영토를 정복하거나 운영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특히 고고학적으로 볼 때 국가의 성립을 판단할만한 수준의 도성유적이거나 유물이 하나도 발굴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오제의 영역과 관련한 『사기』의 주장은 사실에 근거한 기록일 가능성이 거의 없다.

다)의 태도는 가)와도 연결되는 것으로 「오제본기」의 집필 동기를 보여준다. 동시대를 살았던 동이 및 여타 종족의 활동을 기록하지 않거나 축소한 것은 원래 중국의 구성원이던 그들의 업적과 역사를 지우고 한족이 중국의 역사, 문화, 전통의 유일한 담지자가 되고픈 욕구를 반영하고 있다. 미국의 연구자 니콜라스 디코스모가 비판한 것도 바로 이런 동기에서 자행된 중국의 역사왜곡이었다.

라)는 봉건시대와 그 이전의 기록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상투적인 표현으로 거짓과 신화로 정통성을 조작하려는 지배집단의 특징적 화술이다. 모친이 빛에 감응하여 임신을 하고, 토덕의 기운을 가졌으며, 태어나면서 신령하고,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말을 하는 등의 신이한 능력은 신화에나 나올법한, 도저히 역사기록이라고는 믿을 수

---

원장 등을 지낸 권력자로 당시 1962년에서 1981년까지 여러 권으로 편찬된 『中國史稿』는 당시 정부정책으로 출간되었으며, 당시의 통설을 담고 있었다. 따라서 당시 은이나 그 조상이 동이라는 것은 정설로 취급되었다.

64) 張永聖, 앞의 글, 21·32쪽.

65) 孫作雲, 앞의 책. 같은 종족이지만 씨족이 다르므로 성이 같을 수 없다.

없는 황당한 서술이다. 이는 한이 중원 재패 이후 스스로의 적통성을 주장하기 위해 한족과 중화주의를 창조해야만 했던 정치상황의 절박함을 보여준다. 다른 종족들의 찬란한 영화와 역사는 모두 지우거나 자신들의 것으로 둔갑을 시키고, 신화적인 윤색을 보태서라도 한의 정통성을 만들어야 했던 것이다. 절실하고 다급하게 새로운 지배이데올로기로써 중화주의의 창안이 요구되었다는 것은 이전 시기의 화하족이 한처럼 광대한 영토와 다양한 종족이 뒤섞인 사회를 통치한 경험이 전무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기』의 첫머리에 「오제본기」를 배치하고 동이족의 선조들을 화하족으로 바꾸어 조작한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현격한 문명의 차이로 동이가 선도할 수밖에 없던 상고시대를 동이의 활약을 그대로 둔 채 사실대로 기록한다면 문명적으로 한참 뒤쳐져 이렇다 할 활약이 없었을 뿐 아니라 동이의 문명을 전수받기에 급급했던 야만인이나 동이에게 정복된 노예에 불과한 존재로 한족의 조상을 묘사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최종적으로 동이를 물리치고 중원의 패권을 쥐게 된 한족은 당연히 자신들의 조상을 미개인이나 노예로 기록하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때문에 사실 그대로를 기록하는 대신 동이에게 뒤졌던 1000여년의 시간적 간극을 동이의 것을 도용하여 메우는 것으로 역사서술의 방향을 결정하였던 것이다.

## 2) 『사기』의 고조선 왜곡사례 - ‘진번조선’과 ‘호’

『사기』 「조선열전」은 첫 대목에서 “朝鮮王滿者，故燕人也。自始全燕時嘗略屬眞番朝鮮。”이라고 하였다. 이는 『사기』가 사서로서의 기본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마땅히 다루어야 할 나라의 근원과 유래에 대한 이야기를 생략한 채 적통이 아닌 침략으로 조선의

일부를 장악한 연나라 사람으로 조선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마치 화가가 그림의 제목을 ‘한무제’라 하고 사마천의 발을 그려놓은 격이다. 『사기』의 다른 열전에서는 다른 소국이나 이민족에 대해 소상하게 그 유래를 다루고 있지만 유독 고조선에 대해서만 사서의 기본인 그러한 절차를 생략했다. 특히 「주본기」에 스스로 밝힌 ‘기자조선’마저도 누락하였다는 것은 고조선과 더불어 은 역시 제거와 청산의 대상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요하문명’으로 충분히 추정 가능한 ‘문화대국 고조선’에 대한 이런 기술태도는 의도적인 폄하나 후대의 삭제 외에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화하족의 ‘오제’로 「오제본기」에서 도용한 인물들이 고조선의 역사일 가능성마저 의심되는 대목이다. 이런 폄하나 삭제는 고조선이 중국에 앞선 문화대국이며, 강국이었다는 사실에 대한 역설로 읽힐 소지가 충분하다. 조선의 역사와 유래를 생략한 채 건국되고 1000년도 훨씬 넘게 지난 몰락기에 등장하는 ‘위만조선’만이 기록된 「조선열전」은 ‘만조선전’ 정도의 제목을 붙여야 마땅하다. 이러한 삭제 혹은 고의적인 설명의 누락은 후대에 중국의 학자 뿐 아니라 일본 및 한국의 학자들에게도 오해 및 왜곡의 소지를 남겨놓았는데, 오늘날 논란을 부르고 있는 이런 대표적인 기록이 「조선열전」에 등장한다.

「조선열전」에 나오는 “嘗略屬眞番朝鮮”이라는 대목은 일찍이 침략하여 ‘진번조선’을 복속시켰다는 뜻인데, 문제는 중국 뿐 아니라 한국의 대다수 연구자들이 ‘진번조선’을 ‘진번’과 ‘조선’으로 분리하여 번역하여 앞뒤의 문맥이 서로 통하지 않고 해석에 오해가 생긴다는 점이다. 이들은 앞 문장에 나오는 “嘗略屬眞番朝鮮”의 ‘진번조선’과 바로 그 뒤의 문장에 나오는 “其旁小邑眞番臨屯皆來服屬”의 ‘진번임둔’을 비교하여 앞의 ‘진번조선’이 하나의 단어라면 뒤에 다시 ‘진번임둔’이라는 ‘진번’이 포함된 다른 이름이 나올 수 없으며, 진번, 조

선, 임둔이 각각 다른 명사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특정한 목적이 있는 게 아닐 경우 바보가 아니라면 이미 앞의 문장에서 진번과 조선을 복속시켰다고 해놓고, 바로 뒤의 문장에서 이미 복속된 진번이 다시 와서 복속을 하였다고 하며 한 사건을 반복적으로 설명하지 않는다. 게다가 진번이 두 번 복속되었다고 설명해야 할 특정한 목적도 발견할 수 없다. 조선, 진번, 임둔이 각각 서로 다른 명사라면 당연히 뒤의 문장에서는 ‘진번’이 반복되지 않도록 빼고, ‘임둔’만 남겼어야 한다.

문맥과 역사사실을 고려할 때 진은 삼조선의 중심이었던 진조선(=진한)을 의미하며, 진번조선은 진한의 번국인 조선이라는 뜻이다.<sup>66)</sup> 뒤에 나오는 ‘진번임둔’ 역시 진한의 번국인 ‘임둔’을 지칭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기자와 그 후손이 진조선의 제후국인 번조선의 제후였다는 해석이 가능하고, 중국 사서에 종종 등장하는 ‘조선후’라는 명칭에 대한 의문점도 해소된다. 중국의 일방적인 주장과 달리 조선이 중국의 제후국이었을 리 만무하므로 기자의 후손이 책봉된 조선은 진한(진조선)의 제후국인 번조선(=변한)을 말한다. 일찍이 신채호는 “삼조선은…「辰·馬·卞」三韓이라記한 자며, 「신·말·불」三朝鮮은 이두문으로 「眞·莫·番」三朝鮮이라記한 자이다.”<sup>67)</sup>라고 하여 조선이 세 나라였으며, 그 중심국이 眞朝鮮(=辰韓)임을 논증하였다.<sup>68)</sup>

66) 동아한대사전, 동아출판사, 1982, 1171쪽. 番과 藩은 ‘울타리’라는 뜻으로 쓰일 때, 즉 제후국을 뜻하는 번국이라는 의미로 쓸 때 서로 호환하여 쓸 수 있다.

67) 신채호, 「조선상고사」, 앞의 책 上, 91~105쪽.

68) 『사기』 ‘집해주’에서는 서광의 말을 빌어 진번조선의 ‘번’이 ‘막’으로도 쓰인다고 하였다. 이는 신채호가 주장한 진, 번, 말한의 삼한, 즉 삼조선을 중국에서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다는 반증이라 생각된다. 기자조선, 만조선 등 서로 다른 여러 조선이 있었다는 기록 역시 조선이 하나가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또 『삼국사기』의 「신라본기」는 신라 곳곳에 고조선 유민이 정착하였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진한이 본래 신라가 있던 지역이 아닌 한반도의 바깥에 있었으며, 진한이 진조선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우

따라서 위만이 침략한 조선은 진조선의 번국이던 변한, 즉 변조선으로 기자의 후손이 ㅉ가 아닌 진조선에 의해 제후로 책봉된 곳이다. 『사기』를 쓸 당시 고조선과 관련된 사료나 문서를 얼마든지 입수할 수 있었을 사마천이 고의로 조선의 명칭이나 국가체계를 설명하지 않고 생략하여 후대 학자들의 혼란을 부추겼고, 중국을 신봉하는 조선의 유학자 및 현대의 학자들 역시 우리의 글 뜻을 새기지 않고 중국의 사서가 저지른 오류를 따라서 반복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표현의 또 다른 예로 ‘胡’가 있다. 「화식열전」을 보면 연의 경계에 대해 “남으로 제·조와 통하고 동북 변경에는 호가 있다(南通齊趙東北邊胡).”고 하였다. 한의 유향이 전국시대 각국의 책략과 역사를 적은 『전국책』 중에서도 연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다룬 「연책」을 보면 “연의 동쪽에 조선·요동이 있고, 북으로 임호와 접한다(燕東有朝鮮遼東, 北有林胡樓煩).”고 하였다. 『사기』 이전의 기록에서 연의 동북에 호가 있다는 기록이 단 하나도 발견되지 않으며, 『전국책』처럼 연의 동쪽에 요동과 조선이 있다는 기록은 다른 문헌에서도 볼 수 있다.<sup>69)</sup> 또한 「연책」은 연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다룬 전문서라는 점에서 사실일 확률이 훨씬 높다. 결국 『사기』가 불순한 의도로 임호와 조선을 ‘호’라고 통칭한 것으로, 사마천은 의도는 조선을 오랑캐로 폄하하는데 있었던 것이다. 사마천은 주무왕에게 흥범을 가르친 기자가 망명하고, 공자가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문명국 고조선을 중국 역사상 최초로 오랑캐로 전락시켰으며, 후대의 많은 문헌들이 고조선을 호로 칭할 수 있는 문헌적 근거를 만들었다. 본래 중국에서

---

리말 고어에 조예가 깊던 신채호가 주장한 삼조선설에 대해서 명확한 반박의 논거를 제시하기는 쉽지 않다.

69) 『염철론』 「별공」, “燕襲走東胡僻地千里, 度遼東而攻朝鮮”, 동호와 요동 및 조선을 분리하여 설명하고 있다.

‘호’라는 호칭은 북방 종족 전부를 통칭하는 말이었다. 조선과 동이  
는 『사기』 이전의 기록에서 분명히 ‘호’와 구별되어 사용되었다. 사  
마천이 고조선을 거기에 포함시킨 것은 고조선이 문명종족 동이가  
아닌 오랑캐라는 것을 주장하려는 의도였다. 한편 ‘동호’ 역시 고조  
선과 확실하게 구별하여 사용되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살펴볼  
것이다.

『사기』의 고조선 및 동이에 대한 기록들에서는 대개 다음과 같은  
특징들이 발견된다.

첫째, 의도적인 폄하와 무시이다. 중국에서 최초로 고조선에 사용  
한 명칭 ‘호’는 훗날 다른 사서들에 의해 호라는 명칭을 보편적으로  
사용되도록 하는 선례를 남겼다. 또 다른 문헌들에 자세히 기록된 동  
이와 고조선에 대한 내용을 일부러 누락하여 당시의 일반적인 상식  
과 다르게 고조선을 평가절하하고 있다. 다른 책들에 기록되어 있는  
고조선의 내력은 모두 빼고 ‘위만조선’ 만을 언급한 것은 고조선이  
‘한족의 영향으로 성립된 나라’라는 주장을 펴기 위함이었다. 특히 『사  
기』 이전의 어느 문헌에도 기자가 주에 의해 조선에 봉해졌다는 기  
록을 찾아 볼 수 없음에도 어떠한 전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기자에게  
‘조선후’라는 호칭을 사용한 것 역시 『사기』의 기록이 자의적이며,  
특정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둘째,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훗날 왜곡의 소지를 만들어 두었다. 예  
를 들면 ‘호’라는 명칭으로 조선과 흉노, 동호 등을 혼동하게 하여 『위  
략』 등의 서적에서 조작을 가능하게 하였고, 지명 역시 진번조선, 진  
번임둔 등과 같이 혼동을 조장하는 필법을 사용하여 훗날 여러 의미  
로 해석될 여지를 남겨놓았다.

셋째, 고조선의 역사를 제거하고자 하는 의지를 엿볼 수 있다. 고  
조선을 설명하면서 이전 시기의 모든 기록을 누락하고, 사마천 자신

이 「주본기」나 「기자열전」 등에 썼던 기자조선 등의 변천과정조차 생략한 것은 조선의 역사, 특히 위만조선 이전의 역사를 지우고 말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며, 공식적으로 그 역사의 흔적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이다. 한과 전쟁을 하였으므로 기록하지 않을 수 없었지만, 최소한 소략하게 기록하고, 조선 관련 기록 중 언급이 불가피한 것들만 다른 제목으로 분산하여 기록함으로써 전체적으로 고조선의 역사가 불품없고 왜소해 보이도록 배치하였다. 위만조선의 멸망과정으로부터 시간적으로 근접한 시기여서 비교적 많은 사료를 접할 수 있었던 시기에 쓰인 사서로는 실망스럽고 부실하기 짝이 없는 고조선 관련 기록은 중국에서 고조선과 동이의 역사를 지우고, 단절시키고 싶은 한무제와 사마천의 희망이 투영된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들은 고조선과 그 후예들이 아직 과거의 강성했던 힘을 소진하지 않았고, 과거 중국 각지에서 문명과 국가를 세우며 증원을 호령하였던 것처럼 언젠가는 역사와 칼을 들이대며 과거의 지분을 주장할지 모른다는 우려를 하였을 것이다. 영토에 극도로 집착하는 한족들의 오랜 습성에 비추어볼 때 이러한 인식은 사실 조금도 새삼스러울 것이 없다.

이러한 『사기』의 우려는 동시대에 환관이 기록한 『염철론』에서도 드러난다. 「결화」의 “오늘 사이가 쳐들어오니 물리치지 않으면 이는 반드시 만세의 긴 우환이 될 것이다. … 동쪽의 조선을 멸하고 … (今四夷內侵不攘萬世必有此長患. … 東滅朝鮮 …).”라는 기록과 「비호」의 “대부가 말하기를 “옛날에 사이가 모두 강하여 함께 쳐들어와 약탈하고 해쳤다. 조선이 요(외요)를 짓밟고 연의 동쪽 지방을 빼앗았다.”라고 하였다(大夫曰往者四夷具強 竝爲寇虐朝鮮踰徼劫燕之東之).”는 기록이 그것이다. 한나라의 조정에서 조선이 중국의 통일제국에 두고두고 화근이 될 것이라는 걱정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사이 중에서도 조선을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은 조선에 대한 두려움이 제일

앞서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들이 두려워할 만큼 강한 종족이었으며, 더구나 중국역사에 상당한 지분을 가지고 있던 고조선은 사마천뿐 아니라 한이 국가차원에서 방비를 하고 영향력을 제거해야 하는 대상이었던 것이다.

『사기』가 자의적인 서술을 통해 역사왜곡을 자행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한족이라는 새로운 통일된 종족 정체성을 형성하여, 한의 단단한 통치기반을 다지기 위함이었으며, 이러한 통치기반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결정적 이념이 바로 중화주의였다. 중화주의는 한족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의미로 통일된 중국과 그밖에 있는 오랑캐들로 구성되며, 이상적으로는 중국 안에 있는 종족들이 모두 한족이라는 정체성에 동의해야만 성립될 수 있는 이념이었다. 때문에 사마천은 동이족의 조상이나 다른 종족의 조상 모두가 한족의 조상이라는 억지 논리를 펴면서 종족통합을 기도하였던 것이다. 사실 한족은 혈연적 공동체가 아닌 이념적으로 만들어진 사회적 공동체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러한 사마천의 의도는 수천 년 동안 일관되게 관철이 되면서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마침내 ‘한족’이라는 정체성과 ‘중화주의’라는 그들 특유의 사상체계를 만들어내는데 일정한 성공을 거둔 것으로 보인다.

『사기』가 고조선과 동이의 역사를 왜곡, 축소, 조작한 것 역시 ‘한족’이라는 정체성을 만들고, ‘중화주의’의 논리를 정립하고자 하였던 『사기』 본래의 편찬 목적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것이었다. 이후 후대의 국가들에 의해 계승되면서 중국인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이념이 되었지만 당시 ‘중화주의’는 그저 한의 통치기반을 공고히 하려는 의도에서 시작되었다.

## 3. 『사기』이후의 문헌과 왜곡의 사례

『사기』 이후의 문헌 중에서 고조선에 대해 가장 심하게 자의적인 조작을 행한 『위략』<sup>70)</sup>의 기록을 살펴보기로 하자. 다음은 『위략』에 나온 조선에 대한 기록이다.

昔箕子之後朝鮮侯，見周衰，燕自尊爲王，欲東略地，朝鮮侯亦自稱爲王，欲興兵逆擊燕以尊周室。其大夫禮諫之，乃止，使禮西說燕，燕止之，不攻。後子孫稍驕虐，燕乃遣將秦開攻其西方，取地二千餘裏，至滿播汗爲界，朝鮮遂弱。

『위략』은 『사기』보다 더욱 과감하고 자의적인 필법으로 조작의 기술을 동원한다. 기록은 기자의 후손을 ‘조선후’라고 기정사실화하고, 조선이 주실을 떠받들고자 하였으며, 자손이 교만하고 포악해져 진개가 그 서방을 공격하여 2000여 리의 땅을 취했다는 내용이다. 『사기』와 마찬가지로 조선의 내력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고, 난데없이 중국은 권선징악을 집행하는 정의의 판관으로, 조선은 죄를 지은 무도한 국가로 그려진다. 가장 극단적인 조작은 조선이 진개에게 2000여 리의 땅을 빼앗겼다는 기록이다. 『위략』의 기록이 영토에 대한 기득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하지만 이런 내용은 해당 시기와 가장 가까운 시대에 조선을 다루었던 『사기』 「조선열전」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다만 「흉노열전」에 진개가 동호로부터 1000여 리의 땅을 빼앗았다는 기록이 보일 뿐이다. 역시 『사기』와 같은 시대에 쓰인 『염철론』도 연이 동호를 공격

70) 서진 무제 때(280~289)에 위나라의 낭중 어환이 지은 책. 삼국 시대 위나라의 역사를 기록한 사서로, 기와 지 외에 유종, 순고, 가리, 지족, 청개, 용협, 서용, 동이 등의 열전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본은 소실되었으며, 청나라의 장봉일이 위략의 일문을 집성하여 편찬한 『위략집본』 25권이 있다.

하여 1000리를 내쫓고 요동을 건너 고조선을 단지 ‘공격’하였다는 내용을 전할 뿐이다.<sup>71)</sup> 『위략』과 『사기』 「흉노열전」이 말하는 사건이 같은 것이라면 조선은 1000여 리의 땅을 빼앗긴 것이며, 만약 두 사건이 다른 것이라면 조선은 땅을 빼앗긴 적조차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내용은 『위략』 이전에는 어느 기록에서도 발견되지 않은 내용이고, 가장 근접한 시기인 한대의 『사기』와 『염철론』에 조선이 아닌 동호로부터 영토를 취했다는 사실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역시 비슷한 시기에 편찬된 『전국책』 중 연나라를 전문적으로 다룬 「연책」에도 연이 조선을 공격하여 2000여 리를 빼앗았다는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이들 기록은 이구동성으로 진개가 공격하여 땅을 빼앗은 대상이 동호임을 말하고 있다.

따라서, 『사기』, 『염철론』, 『전국책』이 동호와 고조선을 같은 대상으로 보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면 우리는 쉽게 고조선 침략 기록의 진위를 파악할 수 있다. 동호와 고조선이 다른 대상을 가리키는 것이라면 이런 내용을 유일하게 주장한 『위략』의 기사는 거짓일 수밖에 없다.

다행히도 『사기』와 『전국책』, 『염철론』 등 『위략』 이전에 쓰인 책들은 ‘조선’과 ‘동호’를 분명히 구별하고 있다. 『사기』 「흉노열전」에서는 “東胡烏丸之先後爲鮮卑. 在匈奴東故曰東胡.”라 하여 동호가 오환의 조상으로 그 후예가 선비이며, 흉노의 동쪽에 있어서 동호라 한다고 동호의 정체를 분명히 밝혔다. 또 “冒頓上馬令國中有後者斬遼東襲擊東胡東胡初輕冒頓不爲備及冒頓以兵至擊大破滅東胡王”이라고 하여 목돌(목돈)이 동호를 공격하여 멸하였다는 사실과 함께 “諸左方王將居東方, 直上谷以往者, 東接穢貉朝鮮”이라 하여 흉노가 상곡군

71) 『염철론』 「별공」, “燕襲走東胡僻地千里, 度遼東而攻朝鮮.”

을 마주보고 동쪽으로 예맥, 조선과 접하게 되었다는 것을 함께 기록하고 있어 동호와 조선이 다른 존재임을 분명히 구별하여 밝히고 있다. 동호를 세 번이나 동호라고 정확하게 지칭하고 그 동호가 멸망한 후에 흉노가 국경을 접하게 된 것이 조선임을 언급하였다는 점에서 동호와 조선이 다른 존재라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기록은 흉노가 동호를 멸한 후 예맥, 조선과 직접 접하게 되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순서대로 정확하게 언급한 것이다.

『전국책』은 “燕東有朝鮮遼東, 北有林胡樓煩, 西有雲中九原, 南有滹沱易水.”라고 하여 연이 동쪽으로 조선, 북쪽으로 임호·누번(동호)과 접경하고 있음을 말하여 정확하게 조선과 동호를 구별하였고, 『염철론』 역시 “燕襲走東胡僻地千里, 度遼東而攻朝鮮.”라 하여 동호를 물리친 일과 요동을 건너 조선을 공격한 것을 두 개의 다른 사건으로 명확하게 구별하고 있다.

살펴본 바와 같이 『사기』, 『염철론』, 『전국책』 모두 조선과 동호를 분명하게 구별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사건은 『위략』을 지은 어환이 조작한 것이라고 확실하게 말 할 수 있다.

『위략』이 나온 것은 280년대로 연 소왕 통치시기로부터 600년이 지나서다. 600년 전에 일어난 전쟁이 어떠한 기록에도 등장하지 않다가 600년 후에 갑자기 하나의 기록에만 등장하게 되었다면 그 기록을 사실로 믿기는 매우 어렵다. 사건으로부터 훨씬 근접한 시기인 200년 후에 『사기』를 쓴 사마천이나 『염철론』의 환관, 『전국책』의 유향도 몰랐던 사실을 600년 후의 어환 한 사람만 불현듯 알게 되었다는 것은 그가神通력이 있거나 해당기록이 거짓이라는 말 외에는 달리 설명할 방도가 없다.

진개의 조선 공격기록은 어떤 각도에서 보아도 성립되지 않는다. 『위략』의 기록은 『사기』 「흉노열전」의 “진개가 동호를 물리치고 1000여

리를 획득하였다.”는 기사를 ‘동호’ 대신 ‘조선’으로 바꾸고, ‘1000여 리’를 ‘2000여 리’로 과장하여 만든 거짓 기록이다. 여기서 동호를 고조선으로 뒤바꾼 서술은 분명 사마천이 『사기』에서 고조선을 호로 통칭한 선례에 근거하였을 것이다. 실제로 고조선은 연에게 땅을 빼앗긴 적이 없으며, 오히려 연이 동호로부터 빼앗은 땅마저도 얼마 지나지 않아 빼앗아버렸다. 『사기』 「몽염열전」의 “시황이 몽염을 시켜 10만의 군사를 이끌고 북쪽의 ‘호’를 공격하여 황하 이남을 회수하고 황하를 요새로 삼아 44개의 현성을 황하의 연안에 설치하였다(始皇帝使蒙恬將十萬之衆 北擊胡 悉收下南地 因河爲塞 築四十四縣城臨河).”라는 기록이 바로 그 증거이다. 「몽염열전」, 「화식열전」 등에서 말하는 호 역시 동호가 아니며, 고조선을 오랑캐로 폄하하여 지칭한 사마천 특유의 필법이다.

한편 국내학계에서는 대부분 『사기』의 「흉노열전」의 ‘진개의 동호 침략’ 기사와 『위략』의 고조선 침략 기사를 동일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고조선의 중심지를 대동강으로 보는 이병도<sup>72)</sup>나 송호정<sup>73)</sup>, 요동을 중심지로 보는 신채호<sup>74)</sup>나 정인보<sup>75)</sup>, 중심지가 이동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천관우<sup>76)</sup>, 서영수<sup>77)</sup>, 노태돈<sup>78)</sup> 등에 이르기까지 관점은 약간씩 달라도 진개가 고조선을 침략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일정시기 가장 진보적인 견해였던 윤내현의 연구 역시 진개가 2000리를 침략하였다는 『위략』의 기사를 사실로 인정한다. 다만 윤내현

72) 이병도, 「고조선사군강역고」, 『한빛』 통권 4·5·6호, 한빛사 1928.

73) 송호정, 「고조선 국가 형성과정 연구」, 서울대학교원, 박사학위 논문, 1999.

74) 신채호, 「조선상고사」, 앞의 책 上권.

75) 정인보, 앞의 책.

76) 천관우, 「기자고」, 『동방학지』 15, 연세대동방학연구소, 1974.

77) 서영수, 「고조선의 위치와 강역」, 『한국사 시민강좌』 2, 일조각, 1988.

78) 노태돈, 「고조선 중심지의 변천에 대한 연구」, 『단군과 고조선사』, 사계절,

은 진개가 침략 후 바로 퇴각을 한 것으로 이해한다는 점에서 강역자체가 변동된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sup>79)</sup>

그렇다면 『위략』은 왜 연나라가 동호를 공격하여 물리치고 성을 쌓은 것을 고조선으로 바꾸어 언급을 하고 과장하였던 걸까. 우선 한나라 이후 『사기』가 시작한 한족 만들기와 역사왜곡 전통이 중국에서 이미 일정하게 하나의 사조로 뿌리를 내리게 된 측면, 즉 『사기』의 집필의도 및 방향이 매우 성공적으로 후대의 역사서술에 관철되어 갔던 부분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으로는 고구려와 국경을 접하게 된 위나 진이 느낀 고구려의 실질적인 위협을 들 수 있다. 고구려가 조선의 고토를 수복한다는 명분으로 끊임없이 영토 확장을 시도하며 자신들과 충돌을 일으키자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한 위와 진은 기록을 조작해서라도 침략의 빌미가 되는 고조선의 고토에 대한 근거를 최대한 축소시킬 필요를 느꼈을 것이다. 또한 이후에도 고구려처럼 그 후손들이 대대로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해당 지역을 침략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아예 그 후환을 없애려 하였던 측면도 있었을 것이다.<sup>80)</sup> 이는 『사기』가 고조선의 역사를 왜곡한 주된 이유의 하나이기도 하였다.

79) 윤내현, 「고조선의 위치와 강역」, 『군사』 8, 국방부군사편찬위원회, 1984. 167쪽.

80) 『통전』 「변방전」 ‘동이’에서는 당에서 3대의 황제를 모신 재상 두우가 “基地後漢時方二千里 至魏南北漸狹，纔千餘里 至隋漸大東西六千里。”라 하여 고구려의 땅이 후한 때에 동서 2천리, 남북 2천리였지만 수대에는 동서로 6천리에 달하였음을 증언하고 있다. 동서 6천리는 최소한 북경 너머 하북성 서쪽 지역까지 도달해야만 가능한 거리로, 당시 고구려의 세력 확장의 기세는 당이 고구려와 사활을 걸고 전쟁을 벌일 충분한 사유가 될 수 있었다. 고려 중엽 서경천도를 주장한 묘청의 난과 고려 말 최영의 요동정벌 계획이 모두 고조선·고구려에 대한 계승의식에 기반한 고토수복운동이었음을 감안하면, 중국의 고조선, 고구려 역사 지우기는 생존과 후대의 안녕을 위한 필연적인 선택일 수 있다.

『위략』 이후의 문헌들은 동이나 고조선과 관련해서 참고할 만한 사항이 거의 없을 만큼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서술들로 일관하고 있다. 너무나 당연하게 일반화된 후대의 조작 사례는 그 예를 일일이 열거하기도 어려울 만큼 수두룩하다. 우리의 상고사와 관련한 『위략』, 『진서』, 『구당서』, 『신당서』 등의 역사 조작은 이후 고려와 조선의 유학자들에 의해, 일본의 제국주의 사학자들에 의해 인용되면서 역사왜곡의 참고서 역할을 하였으며, 지금도 여전히 한국과 중국, 일본의 일부 사학자들에 의해 끊임없이 인용되면서 새로운 폐해를 양산하고 있다.

#### IV. 맺음말

『사기』 이전의 문헌에서는 동이나 고조선이 대부분 우호적이며, 바람직한 모습으로 묘사된 것을 볼 수 있었다. 이 시기의 많은 기록은 동이에 의해 직접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는 중국의 초기문명이 동이에 의해 시작되었다는 강력한 증거인 세계 최고의 문명인 요하문명의 존재와 중국 각지에서 발굴되는 초기 문명의 흔적들을 통해 충분히 입증된다. 특히 은의 청동문물들은 중국 문명 최초의 기록자가 동이족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일정한 시간이 흐르고 중국내 동이와 한족의 문명이 평준화되면서 점차 동이족을 배제하는 ‘화하족’ 혹은 ‘한족’이라는 정체성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정체성의 분리는 화하족의 세력이 성장하면서 점점 강화되었고, 한이 중원의 패권을 장악하면서 한족의 승리와 동이 역사의 제거와 조작이라는 결과로 귀결되었다. 이러한 역사 조작의 핵심적인 이유는 중국의 통일로 생긴 새로운 차원의 사회를

감당하며 지배할 수 있는 지배이데올로기를 창조하기 위해서였다. 이러한 지배이데올로기를 창조 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한족’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창조해야만 했던 것이다. 그밖에 동이에 대한 한족의 시기와 경계, 현실적인 영토욕 역시 작지 않은 동기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흐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사마천이 지은 『사기』였다. 사마천이 특히 중점을 두고 왜곡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고조선과 동이였다. 「오제본기」에서 한족의 조상으로 묘사된 황제, 전욱, 요, 순, 우, 설 등이 모두 동이족이라는 사실은 사마천에게 고조선과 동이의 역사를 말살할 충분한 동기가 되었을 것이다. 하족이 그들에게 문명의 세례를 준 동이의 역사를 지우지 않는 한 한족의 역사를 상고 시대부터 한대에 이르기까지 온전하게 구성할 수가 없었을 것이고 한족이라는 정체성 역시 구성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고대문헌들을 살펴보면서 함께 『사기』나 그 후의 『사서』들에 의해 왜곡되어 문제가 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인 ‘진번조선’의 해석에 대한 혼선과 ‘진개가 고조선을 침략하여 취하였다는 2000리 영토’에 대한 진위여부 등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해당 문헌 및 당시의 정세를 살피고, 다른 기록들과 비교해본 결과 ‘진번조선’은 진조선의 번국인 조선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당하며, 연개의 고조선 침략 기록은 날조된 허구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다.

『사기』의 역사서술은 한 뿐 아니라 그 뒤에 이어진 중국의 여러 나라에서 끊임없이 역사 기록의 기준으로 작용하였다. 그 기준은 한족의 역사를 과장하고, 치부는 감추며, 다른 종족과 나라의 역사는 축소하는 것이었다. 『사기』에서 정립된 중국의 역사서술 전통은 『위략』, 『진서』, 『신당서』 등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서술이 넘쳐나는 사서들로 이어지면서 더욱 더 강화되고 고착되어 일방적인 주장과 사실무근의 조작이 넘쳐나게 되었다. 이러한 역사창작의 폐해는 중국내부

에 국한되지 않았다. 고려, 조선의 유학자들이 이러한 사서를 인용하여 우리의 역사를 재단하도록 하였고, 근대에 들어서는 일본의 제국주의 사학에 인용되면서 일본에까지 역사왜곡의 전통을 이식하였다. 지금도 한국에서는 이러한 전통의 뒤를 잇는 일부 학자들이 왜곡된 중국의 사료를 가지고 역사적 실체와 동떨어진 연구결과들을 생산하고 있다.

최근 들어 문제가 되고 있는 중국의 동북공정과 일본의 역사왜곡은 자국의 영토이익과 경제이익, 소수민족 통제라는 뚜렷한 목표를 향하고 있다. 한국과 이웃하고 있는 두 나라인 중국과 일본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역사를 왜곡하는 반면 그들과 수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한국에서는 놀랍게도 일부 학자들에 의해 자국의 피해를 스스로 자청하는 역사왜곡이 행해지고 있다. 주로 국가의 이익을 위해 진행되고 있는 동북공정이나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처해야 할 연구자들이 오히려 그들의 주장에 동조하여 그들의 역사왜곡에 날개를 달아주고 있는 것이다. 외부로부터 불합리하고 부당한 과상공세가 지속되는 다급한 상황에서 적전분열한 채 내부에서 싸움을 벌여야 하는 오늘 우리의 상황은 정말로 답답하고 안타깝기 그지없다.

건강한 논의를 거쳐 중국과 일본의 역사왜곡에 강경하고도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만들어졌으면 한다. 같은 목소리를 내지 않더라도 명백하게 잘못된 해석이나 왜곡된 주장에 대해서는 그 잘못과 책임을 함께 추궁할 수 있을 정도의 느슨하고 자율적인 학문적 연대만이라도 한시바빠 조성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참고문헌>

### 사료

『山海經』, 『詩經』, 『孟子』, 『論語』, 『左傳』, 『管子』, 『史記』, 『鹽鐵論』, 『戰國策』, 『漢書』, 『康熙字典』, 『魏略』, 『晉書』, 『通典』, 『三國志』, 『太平御覽』, 『周禮全經釋原』, 『尙書地理今釋』, 『滿洲源流考』, 『潛研堂文集』, 『洙泗考信錄』

### 한국자료

#### - 단행본 -

- 김인희, 『소호씨 이야기 : 산동 다윈커우 동이족의 탐색과 발견』, 파주, 물레, 2009.
- 김정배, 『한국고대사입문1』, 신서원, 2006.
- 노태돈, 『단군과 고조선사』, 사계절, 2001.
- 니콜라스 디코스모(이재정 역), 『오랑캐의 탄생 : 중국이 만들어낸 변방의 역사』 서울, 황금가지, 2005.
- 리지린, 『고조선연구』, 열사람, 1989.
- 신채호, 『단재신채호전집』 상·하, 단재신채호선생기념사업회 편, 1995.
- 오영찬, 『낙랑군연구』, 사계절출판사, 2006.
- 우실하, 『동북공정너머 요하문명론 : 대중화건설을 위한 중국의 21세기 국가 전략』, 소나무, 2007.
- 우실하, 『삼수분화의 세계관』, 소나무, 2012.
- 유. 엠. 부젠, 『고조선』, 보진재, 1986.
- 윤내현, 『고조선 연구』 상·하, 서울, 만권당, 2015~2016.
- 이기백, 『한국사신론』, 일조각, 1999.
- 이덕일 외, 『고조선은 대륙의 지배자였다』, 위드덤하우스, 2006.
- 이병도, 『한국고대사 연구』, 박영사, 1976.
- 이춘식, 『중화사상의 이해』, 신서원, 2002.
- 이형구, 『발해연안에서 찾은 한국 고대문화의 비밀』, 김영사, 2004.
- 최술 저, 이재하 외 옮김, 『수사고신록』, 파주, 한길사, 2009.
- 한국고고학회 편, 『한국고고학 강의』, 2007.
- 윤내현, 『사료로 보는 우리고대사』, 서울, 만권당, 2017.

## - 논문 -

- 김병모, 「동아시아 속의 화순 고인돌」, 『동아시아 속의 화순 고인돌』, 호남고고학회, 2001.
- 김연주, 「선진 시기 산동성 지역 ‘동이’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동아시아학연구협동과정 박사학위논문, 2011.
- 김주미, 「한국어의 북방기원설 답론」, 『한민족문화연구』 27집, 2008.
- 박대재, 「고조선 이동설에 대한 비판적 검토」, 『동북아역사논총』 55호, 동북아역사재단, 2017.
- 박대재, 「고조선과 제의 해상교류와 요동」, 『한국사학보』 57호, 고려사학회, 2014.
- 박선희, 「동천왕 평양성시기의 금관과 요서수복」, 『백산학보』 96호, 백산학회, 2013.
- 박선희, 「홍산문화의 복식유물과 고조선 복식의 지속성」, 『백산학보』 87호, 백산학회, 2010.
- 박준원, 「『수사고신록』의 『사기』 비판 : 공자의 사적을 중심으로」, 『한문학연구』 제3호, 한문학교육학회, 2009.
- 방민규, 「체질인류학으로 본 한국인의 기원 : 치아인류학적 연구를 중심으로」, 『한민족연구』 제 9호, 2010.
- 복기대, 「전한의 동역 4군 설치 배경과 그 위치에 관하여」, 『인문과학연구』 52집,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7.
- 복기대, 「한사군의 인식에 관한 연구1」, 『몽골학』 49호, 한국몽골학회, 2017.
- 서영수, 「고조선의 위치와 강역」, 『한국사 시민강좌』 2, 일조각, 1988.
- 송호정, 「고조선 국가 형성과정 연구」, 서울대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9.
- 송호정, 「초기 고조선의 위치와 사회 성격」, 『한국고대사속의 고조선사』, 푸른역사, 2003.
- 송화섭, 「한반도 고인들의 남방문화론」, 『한민족연구』 1호, 2006.
- 신승훈, 「傳, 歷史와 文學의 境界」, 『동방한문학』 67집, 동방한문학회, 2016.
- 신용우, 「요하의 고조선 유물 : 식민사관과 반도사관」, 이코노믹리뷰 862호, 서울경제, 2017.
- 신형식·이중호, 「‘중화 5천년’, 홍산문명의 재조명」, 『백산학보』 77호, 백산학회, 2007.
- 양중석, 「사기 골계열전에 대한 제평가」, 중국문학 제 50집, 한국중국어문학회, 2007.

- 오강원, 「전근대시기 단군 세계 인식의 확대과정과 맥락」, 『진단학보』 124호, 진단학회, 2015 ; 9호, 2010.
- 오소운, 「외국 학자들이 보는 동이족」, 『순국』 통권 248호, 순국선열유족회, 2011.
- 우실하, 「‘통일적다민족국가론’의 전개와 적용」, 『고구려연구』 29집, 2007.
- 윤내현, 「고대문헌에 보이는 한국 고대사의 두 가지 체계」, 『고조선연구』 1집, 2008.
- 윤내현, 「고조선의 위치와 강역」, 『군사』 8, 국방부군사편찬위원회, 1984.
- 이병도, 「고조선사군강역고」, 한빛 통권 4·5·6호, 한빛사 1928.
- 이인호, 「사기의 허구성과 사마천의 인생관－소진·장의열전을 중심으로」, 『중국어문논총』 28집, 2005.
- 이형구, 「요서지방의 고조선－진개의 동정 이전의 요서지방의 기자조선」, 『단군학연구』 제8호, 단군학회, 2008.
- 이혜영, 「한국어와 드라비다어의 어휘 비교조사」, 『국어과 교육』, 1989,
- 장현근, 「중화주의의 시원과 화이공조론 비판」, 『동방학』 31집, 한서대부설 동양고전연구소, 2014.
- 전해중, 「사기의 역사서술」, 『학술원논문집 인문사회과학편』 44집, 대한민국학술원. 2005.
- 정형욱, 「한·중 역사갈등에 대응하는 한국전략 비판」, 『선도문화』 16권, 2014.
- 진성준, 「동아시아인 집단 Y-염색체 DNA haplogroups 분포에 관한 민족유전체 정보와 한국인 집단의 형성과정 및 기원」, 단국대학교 생물학과 박사학위 논문, 2003.
- 천관우, 「기자고」, 『동방학지』 15, 연세대동방학연구소, 1974.

### 중국자료

- 郭大順, 『紅山文化考古記』, 沈陽, 遼寧人民出版社. 2009.
- 郭沫若 主編, 『中國史稿』, 北京, 人民出版社, 1962.
- 徐亮之, 『中國史前史話』, 香港, 亞州出版社, 1956.
- 張永聖, 「山海經中國東夷故事與傳說」, 山東師範大學校 古代史 碩士學位論文, 2014.
- 孫作雲, 『蚩尤考－中國蛇氏族之研究－夏史新探』, 1942. PDF본.

- 梁啓超, 『中國歷史研究法』, 上海, 商務人書館, 1926.
- 呂思勉, 童書業 共編, 『古史辯』,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2.
- 王寧, 「「五藏山經」記述的地域及作者新探」, 『管子學刊』 2000년 3기. 2000.
- 錢大昕, 『潛研堂文集』 上, 下, 上海古籍出版社, 2009.
- 朱宇迅 著, 朱京巍 主編, 『紅山文化玉器研究』, 北京, 中國書店, 2012.
- 何星亮, 『中國少數民族圖騰崇拜』, 北京, 五洲傳播出版社, 2006.

〈Abstract〉

## Changes in the historical perception of Chinese literature on ancient history

Jang, Wu-Soon·Moon, Chi-Ung

From the Spring and Autumn Annals by Confucius until China's Northeast Asian Project in the modern times, China's historical distortions have the long history and tradition. The book that recorded the historical facts which played the most core role in the tradition of the historical distortions of China is, indeed, 'Shi Ji(Historical Records)'. 'Shi Ji' had been used by Han, which had held the hegemony of unified China, in order to establish the 'Sinocentrism', which is a ruling ideology for ruling the expanded society that is different from before. For this, 'Shi Ji' had to manipulate the Assertion for Hua-Yi's Sharing the Common Ancestor, the Great Unity Ideology, etc. And, for this, the history of the Dong-Yi was stolen.

As a result of taking a look at the historical narratives of China by dividing them into the three times of before 'Shi-Ji', at the time of 'Shi-ji', and after 'Shi-Ji', it was revealed that 'Shi Ji' played the role of a decisive signpost in the historical distortions and the 'Sinocentrism' of China. Especially, the earnest distortions and reduction of the histories of Gojoseon and the Dong-yi from 'Shi Ji', and the decision was definitely decided.

We can see that the literature before 'Shi Ji' is considerably friendly

regarding Gojoseon and the Dong-Yi. The representative literature which mentioned Gojoseon and the Dong-Yi in most detail is 'Classics of the Mountains and Seas'. And it is assumed that such a friendly tone of argument is because of an influence by the initial civilization of China which the Dong-Yi had led.

Meanwhile, by succeeding the Sinocentrism of 'Shi Ji', the Chinese literature after 'Shi Ji' becomes more aggressive and bold regarding the historical distortions. The literature like 'chronicles of the state of Wei' had committed the extreme manipulations that even created the incidents that were not there. The extreme factual manipulations of this time had been unfolded by being interlocked with the activities of recovering the native lands by Goguryeo and the prosperity of the national power. The books that recorded the historical facts of this time, including 'chronicles of the state of Wei', 'the Book of Jin', 'the Book of Tang', etc. succeeded the Sinocentrism established by 'Shi Ji' and the direction of the historical narrative called "The annihilation of Gojoseon and the history of the east", and they strengthened these even more.

While comparing the literatures of the three times, I was able to present a solution, in my own way, regarding the errors of the previously existent interpretations of 'Jinbeonjoseon' appearing in 'Chaoxianliechuan' of 'Shi Ji', which have been problematic until now, and I was able to prove that the article 'The attack by Gojoseon' of Jingae, who appears in 'chronicles of the state of Wei', was a fiction that was created.

※ key words : 'Shi Ji', Sinocentrism, political ideology, Gojoseon, Dong-Yi,  
and Distortion of history.